

1985년 3월 15일 발행/발행권편집인 : 조형/발행처 : 여성평우회 · 서울시 마포구 도화 2동 179-14 태창빌딩 302호 ☎717-1060

여성평우

제3호



여성평우회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정부는 최근에 '85년도 임금조정지침을 발표했다.

사문화된 근로기준법 제 34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시키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됨에 따라, 수년간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정부가 최저임금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명·지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발표를 하였다. 현재의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대체한다는 것은 정부가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원래 최저임금제는 노동력 보호의 측면에서 생긴 제도인데도 노동부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직종을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시키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 수많은 수습 양성공, 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아임금선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

지난 80년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80년의 4.1%하락을 필두로 평균 2.7%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노동생산성은 평균 11.8%가 올랐으니, 그동안 정부의 임금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땀땀이 작업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셈이다. 정부로부터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린 임금은 가이드라인에 주눅이 들어 해치나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임금이 10% 오르면 실제 물가는 소비재가 0.7%, 자본재가 0.17%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왜 정부가 몰랐겠는가?

원래 임금(품값)은 노동력(품)의 값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값이며, 여기에는 노동자 자신의 유지비+가족생활비+교육훈련비의 세가지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분은 물질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로 나뉘어져 있다.

자주적·자립적이지 못하고 대외의존적·종속적으로 발전된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자본이 요구하는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비가 없는 단순노동과 가

차 례

논 단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재평가Ⅱ	4	여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좌전	35
	-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파티마병원 간호원 농성사건과 사우더	
특별기획	제3세계 여성운동시론	20	취업간호원 복귀거부	37
	- 사례연구 I : 칠레여성운동	26	각 계 각 층에 가해지는 성적폭력	39
시 평	MBC시위사건과 여권운동의 방향	31	「헤이본 편지」사건과 한일관계	41

최저임금, 8시간에 일당 5천원을 주장한다!

죽생환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미혼·연소여성노동자의 노동력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혼·여성노동자는 외국자본과 결합된 관료독점자본의 주희생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교육훈련비와 가족부담이 제외된 1인 최저생계비라도 지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불리한 조건에서 결정된 임금은 항상 노동력의 값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외국자본이 쟁겨가는 몫이 크므로 임금은 더욱 낮아져 "기아임금"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18세 기준의 독신여성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는 월 16만원이 넘는다. 이는 8시간 기준 일당 5,400원이 넘어야 최저한도의 생활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항상 그냥 체면을 위한 주장으로 끝나버린다. 서울의 각 공장의 여성노동자 초임은 2,500~3,000원이고 지방은 이보다 더 낮아 2,200~2,700원선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16만원은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 여성노동자들도 올려다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아적인 저임금하에서 신음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일 단 노동부의 발표로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월 10만원, 일당 3,34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벌써 몇년전부터 제기되어온 월 10만원 이하 저임금 일 소 요구가 방치되어오다가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생계비 압박으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에 이르는 저급에서야 최저임금 10만원 운운한다는 것은 더 높이 교양될 3,4월의 임금 투쟁을 미리 무마하고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려는 처사이다. 또한 강력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지도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양면적 모순성을 드러내는 처사이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 임금의 확보는 여성노동자들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단결하므로써 밖에 해결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법등의 폐지와 아울러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2대 총선에 나타난 각 당의 여성정책	43	Ⅱ. 대 본	팔불이마당	53
및 선거공약	43	사해극마당 1. 여교사업신 퇴직마당		63
부 고 가족법 개정의 좌절을 딛고	45	사해극마당 2. 버스안내양 자살마당		67
노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46	여명소식		73
부 록 1. 여성문화 큰잔치를 평가한다.	49	여성노동소식		74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재평가Ⅱ

—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편집자주

이번 호의 「한국여성운동평가」는 70년대의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운동에 대한 2번째의 기획물로서 지난 호의 여성단체운동에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 기층여성의 운동이 여성운동의 범주에 완전히 포괄될 정도로는 덜 성장했지만 행아의 단계를 벗어나 잠재적 주체로 등장하게 됨을 부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는 빈민여성운동을 기획하기로 한다.

I. 문제의 제기 : 여성노동운동을 보는 시각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전개한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여성노동운동'이라고 명명해 보았다. 이것은 '여성노동자에 의한 노동운동'이라는 의미와 '여성운동의 일환'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아마도 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의미로서 박론이 없겠지만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여성노동자들에 의한 운동을 노동운동임과 동시에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에게 여성문제나 여성운동은 단순히 남녀 평등(성차별 반대)의 차원에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갈등과 투쟁의 대상을 남성에게 국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문제와 본질을 극히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형태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초역

사적인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적 조건과 연관해서 파악해야 한다.

산업회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 임노동자로 되는데 이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것은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가 자본주의 사회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전근대적인 생산관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가부장제의 성별노동분업의 계승에 의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순전히 비생산적(무보수의 의미), 사적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사의 부담(출산까지 포함)을 안아야 하는 여성은, 많은 경우 결혼으로 인해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거나 남성만큼 일에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사는 여자의 일, 가족부양은 남자의 길이라는 성별역할분업의 관습과 관념으로 인하여 여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도 온존되고 있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기 이윤확대를 위해 여성노동력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불경기때 해고시키더라도 가족부양의 주된 담당자

인 남성만큼 사회적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볼 때, 여성의 저임금·불안정 고용·장시간 노동·기준 이하의 근로조건 등을 임금노동 일반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성문제의 본질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전개한 생존권 투쟁, 근로조건 향상투쟁 등은 노동운동(임금노동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과 동시에 여성운동(가부장제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였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있었겠지만, 가부장제의 모순에 항거하는 여성으로서의 의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결혼 후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생산활동을 자신들의 평생의 일로서 연관시키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의 측면에서도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단순히 임금노동문제 일반의 본질적 문제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의 인식에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여성운동의 인식을 접합시키고 실천하는 일은 여성노동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남·녀노동자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제를 이용하여 압도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측은 자본이며, 지체계급에 속한 소수의 남성일 뿐, 남성노동자가 가부장제의 온존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극히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다. 노동자 가족은 그의 아내·딸·아들 모두가 노동력으로 임금시장에 차출됨으로써 가족내의 가부장적 권위는 사소한 것이 되었으며 가부장제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경가절하되며, 남성노동자의 임금 또한 하락하게 된다.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결여된 경우,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서로 경쟁적이 되며,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여성취업 진출에 대

해 남성노동자들은 위협을 느끼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거나 자본측에 서서 거부한다. 이는 결국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권익을 정위하여야 하는 보편적 대전제를 간과한 채 작은 이익을 놓고 같이 연대해야 할 노동자들끼리 싸우면서 분열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여성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될 추세에 비추어서, 임금노동의 일반적 문제와 가부장제의 모순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운동의 시각이 남·녀노동자들이 추구해야 할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한국경제개발과 여성노동문제

1. 여성노동의 저임금 구조

한국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외자 도입과 수출증대를 통해 자본을, 즉적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의 성격을 필연적으로 대외의존적인 것, 즉 비자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재생산구조의 비자율성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하였다.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가 자본과 국가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기능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제3세계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회생을 전제한 산업화에 따라 막대한 수의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 특히 서울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도시 주변의 무허가 정착지를 형성하거나 부분 이농한 농민의 자녀들이 공단 주변이나 기타 빈민촌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과잉노동력으로 존재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와 수출위주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여성취업의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1965년부터 1978년까지 13년 동안 여성취업자는 제2차산업에서 연평균 31.1%의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였다. 더우기 경공업이 수출의 주류를 이루었던 7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에서의 생산의 주력은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농촌 출신의 반숙련·미숙련 미혼여성 노동력이었다.

이들 여성노동력이 대거 투입되는 제조업부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임금·하위노동으로 대별된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집안일을 담당하게 하는 성별노동분업의 원리가 사회적 노동으로 확대되어 남성들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여성노동의 '가계보조적' 성격에서 결과한다. 즉,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권연적으로 발생한 핵가족의 유지를 위해 가사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여성노동력은 사유화되며 여성을 부수적인 노동자로 간주하는, 성별노동분업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성별노동분업의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결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성에 의거한 직업분할을 가져와 여성들을 제한된 직종에서 미숙련·단순노동자로 만들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로 순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이윤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러한 요소를 이용하여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끌어들이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노동력이 연평균 31.1%라는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면서도 제2차산업의 단순노동에 집중, 순환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여성노동자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부문은 전통적인 여성산업으로 알려진 섬유, 의복, 가발분야(평균 70%)와 기술측면보다 조립가공도가 낮은 현대산업으로 단순·미숙련 노동을 급격히 필요로 하는 전기기계, 전자제품, 조립부문(평균 60% 이상)이고 그외 도자기, 식료품, 가죽, 고무, 플라스틱 등이 50% 내외, 기타 목

재, 화학, 음료품, 인쇄출판 등이 25~40%이다.¹⁾

생산품목별 수출 구성비를 보면 섬유가 30.0%인 반면 4.9%, 전자제품이 9.9%로 여성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이 세 분야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여기서 그외의 수출품목의 구성비를 보지 않더라도 노동력이 곧 70년대 수출시장의 근간이고 경제성장의 기본요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 여성취업 비율을 보면,³⁾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수록 여성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기술적 측면 내지 분업의 고도화로 단순·여성노동력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노동자를 차별적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편 7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수출은 전체수출에서 18%나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 전기 및 전자, 화학, 섬유, 기계 및 금속의 순위로 수출대중상품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이 부문의 높은 비중은 해외투자의 동기가 한국여성들의 보다 싼 임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 외자기업은 저임을 바탕으로 한 초과이윤이 최대의 목표이므로 언제라도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는 태세를 갖추어 내국기업체에 비해 실업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 외자기업의 진출이 저개발의 개발을 심화시키면서 문화식민주의적 양상을 보여온 것도 고도성장의 어려운 일면으로 인식되어 왔다.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경제가 발전될수록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

1) 노동청,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 1980, p.62

2) 한국 기록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 경제현상분석」, 1980, 9 p.115

3) 노동청, 위의 책, p.62

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상황도 더욱 열악해졌다. 불투명한 수출전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규모의 축소나 기업의 도산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권 속에서 실업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2. 여성노동자의 현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저임금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은 여성노동자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임금, 시간, 작업환경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임금과 시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 53.6⁴⁾시간 이는 일본의 41.0 시간에 비하여 12.6시간, 미국의 39.8 시간에 비하면 13.8 시간이나 더 긴 시간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은 197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76년 현재 한국은 180, 일본은 151, 미국은 117⁵⁾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노동자에 비하여 훨씬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 월급은 일본의 1/7, 미국의 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도시노동자들이 받는 소득이 80년 현재 경제기획원이 산출한 도시근로자 생계비의 5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 채 성장의 결실이 자본과 외국에게 일방적으로 분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우기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80년 현재 남성의 44.4%⁷⁾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여성취위의 성별노동분업에 의해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계보조적인 임금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는 연 8%이상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기아생계마저 보장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간도 81년 현재 월평균 남성의 225.6시간에 비해 11.2시간이 긴 236.8시간⁸⁾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8시간 노동으로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장시간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여자는 밤 10시~익일 새벽 6시까지의 야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실시로 정기적인 야간작업 또는 철야작업 등이 비일비재하다.⁹⁾

4) 1981년 현재로 오후 7시이후의 작업은 생산치 않은 수치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

5)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 p.370-371

6) <표-1> 전도별 도시근로자 가계동향(단위: %)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계가구주 근로소득	가계적자율
1970	100.0	78.7	21.3
1975	100.0	68.9	31.1
1978	100.0	65.5	34.5
1979	100.0	62.4	37.6
1980	100.0	52.5	47.5

자료: 한국노총, 경제기획원

7) <표-2>

남녀임금격차추이

(남자=10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여성노동자 임금	43.6	45.6	46.1	46.4	42.2	43.9	43.9	42.6	43.3	44.4

자료: 노동청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77.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

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

9) <표-3> 업종별 야간작업빈도 단위: %

	없다	가끔있다	교대제라 자주있다	교대제는 아 니지만 자주 있다
섬유	39.0	24.7	35.0	1.3
전자	63.7	26.1	8.9	1.3
고무	35.3	61.8	1.8	1.2
식품	11.9	20.2	66.3	1.6
피혁	37.2	48.5	2.6	11.7

자료: 한국노총, 조직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1978.

② 휴일 및 모성보호

휴일도 1주일에 1번이 54.4%, 2주일에 한번 이상 쉬지 않는 작업장은 45%나 되며, 한 달에 한번, 또는 쉬지 않는 노동자도 17.1%나 된다.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리휴가조차도 70% 이상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육아시간, 산전산후 휴가도 대부분 실시되는 결혼퇴직제와 더불어 사문화되었다.

③ 작업환경

78년 노총에서 제조업 여성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당면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이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강도높은 노동, 잦은 철야나 교대작업에서 오는 피로와 불규칙한 생활, 저임금으로 인한 영양결핍,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126명의 시장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96명(77%)이 폐결핵이나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으며 100명(81%)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126명 전원이 건물 밖의 밝은 곳에서 충분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병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작업장 먼지로 인한 폐·기관지 질환이다. 환풍설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안되는 설비부자를 안하고 오히려 폐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보상은 커녕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해고시켜버리는 예가 많다. 작업환경이 비교 4 좋다고 하는 전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콘트롤데이터 노조가 1977년 62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장병 391명(34%), 시력감퇴 106명(9%), 결핵환자 5명(0.44%), 기타(빈혈, 신경통, 편비 등) 79명(6%)으로 나타났다. 또 납용접을 하는 노동자 219명 중 48%인 106명이 납중독에 의한 피부병으로 시달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직업병은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 등으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앓고 있는 일반 질병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작업장 먼지로 인한 폐결핵, 기관지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병, 편비, 하루종일 햇빛없이 계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 등은 분명히 열악한 노동조건이 초래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상책도, 사전 예방책도 전혀 없는 상태이며 결국 몸이 병들어 버린 노동자는 생계마저 끊긴 채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냉혹한 자본의 논리는 안전위생설비에 대한 철약에 급급하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힘없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Ⅲ.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전개와 성격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이 대두되게 된 것은 아직 100년도 안되었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있었으며 격동의 세월 속에 운동의 맥이 단절되는 듯하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70년대의 노동운동은 우리나라 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면을 갖고 대두된다. 즉 60년대 이래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에 따른 노동자의 숫적인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은 60년대 말부터 대규모의 노동쟁의를 발생시키고 70년대 초반에 들어 급격한 쟁의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70년 '외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동결하였으며 72년에는 유신헌법, 74년에는 긴급조치의 발동이라는 탄압강화 장치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거의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생존권 확보와 권리를 위한 기층노동자의 투쟁은 자연발생적,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계획적, 집단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즉, 노동쟁의의 발생은 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63년에서 71년까지 연평균 102건이었으나 75년에서 80년까지는 연평균 125건으로 증가하였다. 더우기 63년에서 71년까지는 쟁의가 합법적인 시기로서 노동청에 쟁의신고를 한 것을 중심으로 집계한 것이나¹⁾ 75년에서 80년까지는 쟁의가 불법화된 속에서 발생한 작업거부·농성·시위 등으로 표출된 것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다르며 실제로 준법투쟁 등 노동조합의 소극적인 쟁의를 합친다면 그 숫자는 훨씬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0년대의 노동운동은 60대의 철도·노조·외기노조·광산노조·부두노조 등의 기간산업 내지 남성중심의 운동으로부터 섬유·화학·금속 등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쟁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투쟁방법도 보다 조직적이고 격렬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가정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이중의 억압을 당하므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노동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으며 사회변동의 중심세력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에서는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였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노동운동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 여성노동운동 지도력의 성장

60년대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정책과 더불어 국내외의 많은 자본들은 값싼 미혼여성 노동력을 겨냥하여 섬유·전자·고무 등의 산업에 대거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은 급증하였으나 남성보다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혹사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임은 6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인 농성·파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지도력의 결핍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노동조합에서조차

여성은 감히 분회장, 지부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겨우 부녀부장 등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노총산하 지부 448개 총 49만9천7백1명(72년3월31일 현재)중 여성이 12만4천5백5명이나²⁾ 되지만 여성지부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던 중 72년 5월 7일 부산의복보세가공지부(남자 412명, 여자 3,600명)에서 최초로 이순자(50세)씨를 여성지부장으로 탄생시켰으며 뒤이어 5월 10일 동일방직(남자 300명 여자 1000명)에서도 주길자씨(27세)를 여성지부장으로 탄생시켰다.³⁾ 남한제지에서 노조결성 당시 변순옥씨를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하였으며 74년에는 반도상사에서 한순임지부장, 75년에는 YH의 최순영지부장, 고미반도체의 이순금지부장(76년), 삼성제약의 김현진지부장, 한독산업의 박인순지부장 시그네틱스의 김점옥지부장, 콘트롤레이타의 박명지부장(77년) 등 77년 3월에는 여성지부장이 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분회장은 56명 여성부장 492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지부 523개, 분회 3900개)⁴⁾ 80년에는 여성지부장 19명, 여성분회장 186명, 여성부장 1801명(당시 지부 565개, 분회 5603개)으로 되었다.⁵⁾ 이는 전체 여성조합원의 비율(70년도 24.4%, 80년도 36.7%)에 비하면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70년대 후반이후 여성조합원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동운동 지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여성지도력의 성장은 동일방직, 시그네틱스와 같이 기존의 남성지도력이 있는 곳에서 남·녀대결을 통해 여성지도력으로 바뀐 곳도 있지만, 노동조합 결성 당시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도상사는 회사측과 섬유본조 쟁의부장의 농간에 항의하며 천야농성을 벌이면서 남성지부장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했으며 YH의 경우 해고, 전출 등 회사의 악탈

1) 이중 쟁의행위가 수반된 것은 6.8%에 불과하다.

2) 중앙일보 72. 5.12(5)

3) 중앙일보, 72. 5.12(5) 4) 한국노총, 1978년도 사업보고. 5) 한국노총, 1980년도 사업보고.

부당노동행위와 맞서 싸우면서 여성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었다.

한편, 노조결성의 자유등을 외치며 5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성수동서 한양대학 앞까지 약 1.5km를 시위한 통천화섬 여성노동자들의 시위(1976), 제일제당의 여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투쟁(1977)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비록 노조결성에는 실패하였지만, 여성의 지도력이 투쟁과정에서 크게 발휘되었다.

이처럼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성지도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투쟁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겪으면서도 운동속에 축적되어 꾸준히 성장·발전하였다.

이같이 지속된 여성지도력의 증가는 여성이 가부장제 의식을 극복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들 여성지도력과 의식있는 여성조합원의 증가는 민주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2. 민주노동운동의 주도

여성노동운동 지도력의 성장과 아울러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커다란 특징은 민주노동운동을 주도한데 있다.

‘민주노동운동’이란 70년대의 노동상황이 만들어 낸 용어이다. 즉 관으로부터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대부분의 기존 노동조합이 관제·어용노조로 변모한 데 대항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권익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노조를 민주노조라 불렀다. 민주노동운동은 주로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라 불릴 수도 있으나, 70년대 노동운동을 보면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노조와 상관없이, 또는 어용노조에 대항하면서 노동자 스스로 권익투쟁을 펼 사례까지 포함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71년 국가보위법에 의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동결되므로써 합법적인 정의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근로조건 개선운동에

대한 제약을 초래했으며 73년 노동법개정에 의해 산별단위의 총파업⁶⁾ 등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억압적 조치에 노상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운동을 포기하고 교육과 국제교류 등을 중점사업으로 할 것을 73년도 사업보고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60년대에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철도·광산·외기·부무노조 등의 정의가 격감했으며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도 노동자의 단결된 힘의 행사가 통결된 채 사용자 일방의 강한 힘에 억눌려 대부분 소극적인 준법투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굴종적인 타협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율이 71년도의 41.3%에서 74년에는 37.9%로 떨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는 조합간부들이 조합내 지위 유지에 급급하여 노동조합 원래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노동운동에 대한 신념이 약해 사용자·관 등 외부압력에 설득당하므로써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연관없이 근로조건 개선운동을 떠나가기도 하였다. 즉 장시간 강제노동, 강제예배 제지를 요구한 대한모방 여성노동자들의 투쟁(1973), 해태제과의 곱배기노동(일요일에 18시간 노동)을 없애기 위한 휴일복근거부운동(1976) 및 8시간 노동제요구(1979), 공정한 임금인상요구 및 노동조합의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인 남영나이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1977), 세불임금 요구를 호소한 방림방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1977), 저임금에 항의하는 태업 및 총파업을 단행한 진로주조 여

6) 69년 섬유노조는 면방분회의 임금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지시했으며 71년에도 면방·모방등의 분과별로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였다. 70년 철도노조는 단독신분법 제정을 위해 총파업지시를 내리는 등 60년대 후반부터 산별단위의 힘이 강화되고 있었다.

성노동자의 투쟁(1978) 등과 같이 끊임없이 근로조건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으며 통일방직(1972)과 한국모방(후에 원풍모방으로 바뀜: 1972) 등에서 노조민주화투쟁을 벌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통일방직·원풍모방과 함께 청계피복노조(1970), 반도상사(1974), 콘트몰레이타(1973) YH무역(1975), 민성전자(1974) 등도 대부분 여성조합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성되어 민주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위의 민주노조의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와 연관없이 싸워왔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노조나 상층노조의 민주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므로써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부 상층노조간부와 마찰을 초래하였다. 더우기 어용간부들이 관과 사용자와 결합하여 민주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되므로써 이들은 도시산업선교회, J.O.C., 교대노동문제연구소, 크리스찬 아카데미, 약학 등의 종교인이나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위의 탄압세력에 대항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외부기관은 조합원 및 지도자교육을 통하여 민주노동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교회, 지식인, 학생 및 사회에 여론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운동가 자체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외부세력과의 연관이나 자체교육, 소그룹모임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식을 개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 지속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운동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여성조합원들의 고양된 의식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전업거부·중식거부·리본달기 등의 소극적인 준법투쟁 등의 방법 개발과 농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유효적절히 사용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 특히 원풍모방은 동종 타업체의 임금에 비하여 20~30%정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해태제과의 8시간노동투쟁은 12시간 노동에 받던 임금을 유

지하면서 8시간노동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동종 타업체인 롯데·크라온·동양제과 등으로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⁷⁾

이들 민주노조는 남성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성이 지도력을 갖고 있었으며 여성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력이 그 힘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70년대 후반 여성노동운동가들의 투쟁이 격렬해지자 이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어, 여성노동자들은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77년도 청계피복의 노동교실을 폐쇄할 때 임미경양은 제 2의 전태일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재판을 받았다. 78년 통일방직 동물사건이후 3월 20일 여성노동자들은 기독교방송국에 찾아가서 “광풍의 크낙새가 죽으면 크게 보도하고 노동자들이 폭도들에게 통을 먹은 것은 어찌서 보도 못하는가”고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여의도 부활절에배시에 6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단상에 올라가 “노동3권 보장하라”며 외쳐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79년 YH사건, 신민당사 농성사건에는 기동경찰의 침입시 김경숙양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의 격렬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YH사건은 10.26사건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민주노동운동은 주로 여성조합원의 높은 의식과 단결 및 투쟁력을 바탕으로 70년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가 사회변동의 주체로써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여성단체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예를들면 77년 남영나이론사건 때 대한YWCA, 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유권자연맹 등 6개 단체가 11명의 해고 여성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회

7) 해태제과는 80년 봄 기본임금 60% 인상효과를 가져왔으며, 롯데제과는 또 다시 임금인상투쟁을 벌여 남자 80%, 여자 78%를 인상하였다.

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여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또한 78년 동일방직사건 때에도 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유권자연맹이 대책협의회에 가입하여 동일방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였으며, 79년 해태제과사건 때에는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보였다. 광주대단지사건(1971)과 같은 빈민운동, 한진상사 파월노루자의 KAL 빌딩 방화사건(1971), 현대조선소 노동자 3천여명의 폭력적인 노동분쟁(1974), 10.26 사태의 직접적 계기인 부마사태, 마산·철원공단의 노동자들의 투쟁(1979), 사복사태(1980) 등과 같이 노동조합의 결성이 거의 불가능한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자연발생적이고 폭발적인 노동쟁의, 평화시장의 전태일(1970), 한국회관의 김자호(1971), 삼영정밀의 정귀한(1978) 등과 같은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극한적인 저항을 통해 사회고발을 기도한 사건 등과 함께 민주노동운동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커다란 맥을 이루는 것으로 이들이 자기 우리사회에 던진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다. 전태일사건은 16인이하의 영세사업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사회전반에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지식인·학생 등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중심의 대기업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이고 폭발적인 노동운동은 비록 일회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분적 정책 변경이나 정치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반면에 여성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운동은 70년대의 불법화한 노동운동의 맥을 이어나갔으며 민주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IV. 70년대 여성노동운동 사 례 연 구

앞 글에서 70년대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그를 통해 여성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하였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여성노동쟁의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자가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노조결성 사례 : 반도상사

반도상사는 부평 제4수출공업단지내에 있는 회사로서 가발·봉제부에 각각 700명씩 1400명(남자 200명, 여자 1200명)의 종업원을 가진 럭키·금성 그룹의 계열회사였다. 그러나 대재벌의 회사인 반도상사는 1974년 2월 현재 초임 일당이 153원으로 5년된 반장도 410원에 불과한 저임금과 오전 8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한 밤 10시, 심지어 새벽 4시까지의 철야작업, 게다가 상급노동자나 남자사원들에 의한 잦은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는 74년 2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지도하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파업을 벌이게 하였다. 회사는 파업을 수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에 합의하였으나 상부조직인 전국섬유노동조합(이후는 본조) 정의부장과 결탁하여 파업을 주도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고 남성노동자를 매수하여 노조결성에 대한 사전모의를 하였다. 3월 5일 본조 정의부장의 사회로 노조결성대회가 시작되어 지부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을 선출하였으나 대부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남자로 하였다. 대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파업을 주도했던 여성노동자가 앞에 나와 본조와 회사의 흥계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다. 때마침 사전에 회사에 매수되어 전형위원으로 선출된 한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일어나서 회사와 본조가 사전에 남성 지부장을 선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폭로하였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이날 밤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6일 새벽 7시30분쯤 회사는 부평경찰서의 정·사복 경찰관 50여명과 사원 경비원을 동원하여 몽둥이로 여성노동자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폭력적으로 농성을 강제해산 시켰고, 경찰은 21명의 노동자¹⁾

1) 20명의 여성근로자와 1명의 남성근로자가 연행되었으며, 특히 남성근로자는 무수히 구타당하였다.

를 연행하였다. 그러나 회사에 남은 모든 노동자들은 연행된 동료들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회사는 경찰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를 주동한 여성노동자 1명을 제외한 20명을 그 이튿날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들 20명은 나머지 한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물아가지 않아 연행 이튿날에 모두를 석방하였다.

한편 회사는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주동자가 있는 가발부를 탄압하는 한편 봉제부와 가발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자들을 매수하여 노동조합이 필요없다는 말을 퍼트리기도 하였으며, 노조 결성을 미루도록 본조에 압력을 가하였다. 본조는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대회를 열 것을 계속 요구하고 또한 섬유노조가 결성대회를 해 주지 않으면 전국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위협에 4월 15일 임원선거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대회를 열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산업선교회와 상의 끝에 회의진행법등 조합결성대회의 진행순서 및 절차등을 미리 알고 대회에 임하고 노동조합 조직대회의 폐회식 직전에 사회를 노동자측에서 합법적으로 맡아 기습적으로 임원선거 및 여성지부장 선출 등을 한 후 노동조합설립 신고필증을 받으로써 노조결성에 성공하였다.

이와같은 반도상사의 노조결성과정은 산업선교회 일부 남성노동자의 지원도 있었으나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회사와 본조의 여러가지 책동을 극복하였다. 또한 보위법과 살벌한 긴급조치 한아래 한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은 것은 반도상사 노동자들의 격렬하고 조직적인 투쟁력과 여성지도력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투쟁과정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고양되고 근로조건은 월등히 개선되었으며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2. 민주노조탄압에 대한 항거 : 통일방직

통일방직주식회사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여성노동자 1,000여명, 남성노동

자 300여명이 광목·포플린·재봉실·혼방 면직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

통일방직은 70년 초까지도 남성지부장들이 비민주적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오다 72년 5월, 여성지부장을 탄생시켰으며 여성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이들 여성들은 이제까지 회사의 조종에 의해 움직였던 것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투쟁과 단결로써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회사는 여성지부장을 중심으로한 집행부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탄압 외에 회사측이 후원하는 남성노동자들이 노조를 장악하여 어용화시키려고 계획하였다.

76년 4월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노골적인 탄압을 하여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노동자들이 대외지연작전을 펴고 결국 자파대의원만으로 대회를 열어 남성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려 하자 여성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반나체의 몸으로 절규하였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수치심마저 던져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경찰은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연행하였다. 이사건 이후 남성지부장(이봉우)은 버젓이 지부장 행세를 하였다.

그런데 76년 7월에 열린 섬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태는 당시 방순조섬유노조위원장을 통일방직문제의 처리를 못한 것으로 공박,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김영태가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이 봉우는 회사와 공모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격렬한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77년 4월에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또다시 여성지부장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8년 1월의 섬유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사고지부 수습절차조항이 개정되었다. 섬유노조산하 지부나 분회는 본조에서 사고지부로 규정되면 곧 사고지부가 되버려 본조위임 수습위원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악조항이었다. 이외에도 김영태는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직행동대도 전성하였다.

78년 대의원 선거일이 공포되었다. 회사측은 전 입감사까지 상주시키면서 조합원들을 강제로 교육시키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노조에서는 경찰에게 치안유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선거일 새벽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5~6명이 사무실의 기물을 파괴하고 선거하러 오는 여성조합원들에게 통물을 휘집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고, 뒤이어 나타난 조직행동대는 노조사무실을 강점하고 대회를 방해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 농성을 하였고, 섬유노조측에서는 이를 기회로 동일방직노조를 사고지부로 규정하고 현 집행부를 해산시켜 버렸다.

어용노동귀족의 이러한 작태에 몹시리려 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절행사에서의 호소, 인천 담동 성당에서의 단식농성, 명동성당에서의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이에 노동자, 해적교수, 민주청년, 종교계, 여성단체 등 자제인사가 참여하여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회의를 구성하였으며 동협의회는 정부고위층에게 동일방직사건을 대의원 선거 이전으로 환원시켰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게다가 전국 섬유노조에서는 해고된 126명 노동자들의 명단을 전국 각 사업장에 돌려 다른 사업장에서의 위협질마저 막았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를 조직하고 동지회보를 만들어 해고자들의 단결과 투쟁력을 결집시키고 어용지부장 반대투쟁, 동일방직사건 연극공연 등 자신들의 복직을 위한 싸움을 꾸준히 계속하였으며 그리하여 10.26 이후의 80년 1월 19일 섬유노조 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국노조지부장 38명이 모여 김영태에 대해 "동일사건 등 그동안의 노사분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섬유노조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노총에서도 김영태노총위원장의 사임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영태는 신병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정한주를 직무대리로 위촉하였다.

그러나 80년 봄, 학생·지식인 등은 거의 복교·

복직되었으나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당한 동일방직 노동자 등은 복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5월 초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은 노총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복직을 위한 집단농성을 벌이자 정한주 노총위원장 직무대리와 노총청장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직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회사와 빈번한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복직을 위한 노력은 5.17 사태에 의해 무산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동일방직사건은 정치권력, 회사, 상부노조가 야합하여 여성노동자들을 거리로 몰아내었으나 그들은 불굴의 투지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여 유신말기에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8시간 노동정착 : 해태제과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제과업체의 선두주자로서 2700여 종업원이(여자: 약 2000명) 100여가지의 과자류·점·캔디·카라멜·초코·빙과 등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인 이들은 12시간씩 2교대제로 1주일에 한번씩 주야를 교대하는 장시간 노동²⁾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임금은 일당제가 아닌 도급제³⁾로서 노동자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손에서 피가 나고 손가락이 뻘뻘어지도록 일을 하였다. 더우기 76년까지는 해도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18시간씩의 곱배기 노동에 시달렸다. 더우기 노동조합은 이와같은 장시간 노동에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연관이 없이 산업선교회원을 중심으로 곱배기 노동을 없애기 위

2)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7시 30분 퇴근(주간반) 저녁 7시 30분 출근 아침 7시 30분 퇴근(야간반) (주: 90시간이상 노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3) 76년 2월현재 16,800개의 점을 포장하면 840원

해 일요일의 특근거부운동(1976년), 껌부의 기계수당받기운동(1979년) 등을 전개하여 성공하는 등 부분적인 근로조건 개선운동을 전개하여 해태제과는 동종 타업체에 비하여 높은 임금과 나은 근로조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파괴시키는 주·야 2교대의 12시간 노동과 도급제라는 커다란 과제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특히 주·야 2교대의 12시간 노동은 여성들에게 야간근무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6조와 여성에게 주 12시간, 년 150시간 이상의 잔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57조 위반이었다.

그리하여 79년 초에는 노조와 회사측에 도급제 철폐와 8시간노동을 요구하였으나 7월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리하여 79년 7월 4일 비스켓부 포장반 A·B조 200여명이 8시간노동과 도급제 철폐를 주장하며 잔업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회사측은 남자기사와 노조간부들을 동원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8시간 일하고는 임금이 작아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설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회사측이 언제부터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인지 그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산업선교회원이 중심이 되어 여름휴가후 8월부터는 정식으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8월초부터는 비스켓부·껌부·캔디부·카라멜부의 여성노동자 약 600-700여명이 잔업을 거부하고 정시에 퇴근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남자노조간부 및 남자노동자들에게 여성노동자들의 8시간노동투쟁을 폭력으로써 저지하도록 하였다. 남자기사들은 "x년들이 너희들은 처자식이 없으니 8시간만 일해도 살아가기 어렵지만 우리는 살 수 없다"며 "8시간만 일하고 나가는 년들 모가지들 비틀겠다" "썰어 먹겠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비틀고 빵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다니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3명을 실신시키고 1명은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더우기 이때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여성노동자들은 비록 같은 동료일지라도 회사측의 조종을 받아 무자비하게 날뛰는 남성노동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산업선교회의 도움을 얻어 탄원서·진정서·호소문 등을 만들고 기도회를 개최하여 폭력사태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폭력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회사는 가족이나 친지·소개자들을 협박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강제사표를 쓰게 하거나 12시간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였다. 특히 회사는 시골집에 전보를 치거나 직접 찾아가서 "당신 딸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해태직원이나 납품업자, 판매업자들인 소개자들로 하여금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여성노동자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애원하기도 하면서 8시간노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탄압에 의하여 8시간노동을 주장하던 600~700명의 여성노동자 중 1/10에 해당하는 70~80명이 강제사표를 내게 되었으며 9월에는 15명⁴⁾으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15명은 갖은 회사의 탄압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8시간 노동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한편 노동청은 8월 11일 YH사건이 정치화되어 여론이 물끓듯하는 데다 해태제과에서까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탄원서 진정서 및 기도회가 개최되고 기독교계에서의 저항이 강력하자 8월 17일 회사측에 12시간노동제 시정을 지시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해태 사장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전국화학노조는 해태제과 여공들의 끈질긴 싸움에 자극받아 9월 11일 식음업체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8시간근로제 확립과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메워 줄 것을 사용자측에 통보하여 '8시간노동제 연내 실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과 내부의 끈질긴 투쟁은 9월에 '진정차대표'이사로 하여금 임금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면서 8시간 노동으로 80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언약하게 하였다.

4) 10월에 들어 2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해태제과는 80년 3월 2일부터, 롯데제과, 동양제과, 크라운제과가 서울식품 등에서는 4월 1일자로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8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12시간노동시 받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오히려 10% 인상하므로써 기본급은 60% 이상 인상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해태제과 여공들의 외롭고 선구적인 투쟁은 비록 희생의 댓가는 컸을지라도 동종타업체까지 그 영향력을 파급시킨 커다란 효과를 얻은 싸움이었다.

4. 모성보호도 여성운동의 과제로 : 콘트롤데이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남녀차별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쳐 여성으로서의 자각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자각은 여러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여성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전자, 섬유, 방직계통의 활발한 노동운동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용노동조합을 여성이 장악하면서 활발한 노조활동을 벌인 동일방직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성보호조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인 콘트롤데이타 노동조합, 이외에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생리휴가 획득, 결혼퇴직제 반대, 산전산후휴가 획득을 위한 싸움을 벌였고, 이 싸움은 생존을 위한 임금투쟁,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일부를 이루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투쟁사례 중 콘트롤데이타(C.D.K) 노동조합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5조는 노동자에게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균등처우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법조항으로 옮기에는 너무도 두꺼웠고 '여성의 노동은 결혼이전까지'라는 의식은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열악한 작업조건 개선과 인식변화의 문제인 것이다. CDK노조에서는 우선 결혼퇴직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먼저 노조간부

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75년 노조분회장이 결혼 후 계속 출근하니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76년 생산직 노동자가 결혼 후 출근을 선언하자 회사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방해하였으며 현장에 여성노동자들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노조는 해결책에 부심하던 중 우선 1단계로 결혼퇴직제만 없애기로 하고, 임신할 경우 노동자 스스로 퇴직할 것이라고 회사를 설득했다. 이 전략이 맞아 들어가 이후에는 결혼하고도 회사에 계속 다니는 노동자들이 조금씩 생겼다. 그러나 이들도 임신 6-7개월이 되면 모두 회사를 떠났다. 노조는 제2단계로 교육을 통해 출산후에도 회사를 다니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좋다고 설득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77년 가을 생산직 노동자중 34살의 고참 노동자가 결혼 후 출근을 선언, 노조에서는 더 나아가 출산하고도 다니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출산일이 다가오자 회사에서는 남편의 능력여부 등 모욕적인 언동으로 퇴직하기를 권유했다. 노조의 강한 항의와 본인의 굳센 의지로 결국 60여일의 출산휴가를 획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혼여성들도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아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콘트롤데이타의 경우는 여러회사에서 있으면서 노조활동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권리의식이 싹트고 모성보호, 결혼후의 계속취업보장, 출산휴가, 수유, 탁아시설 등 여성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깨달게 되는 예이다. 모성보호와 연관된 이러한 활동은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책임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70년대의 이러한 자각은 80년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폐업에 맞서면서 정치변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 YH 무역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에 있어서 YH노동조합의 운동은 가히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70년대초 비조직 사업장인 평화시장의 전대일이 생존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불살랐던 때로부터 정확히 10년만에 조직된 사업장의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보여진다. 70년대의 대표적인 민주노조였던 YH노동자들이 경영진의 무책임한 폐업에 맞서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다가 결국은 야당인 신민당사에 찾아와 농성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들의 문제가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70년대 정치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구조의 일화라는 것을 폭로하는 과정이었다. 이들은 결국 그 구조의 담당자였던 유신정권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해산당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70년대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출시켜 준다.

1966년 재미교포 장용호가 종업원 10여명으로 시작한 가발생산업체 YH무역은 가발수출의 호경기와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70년대에는 종업원 4,000여명 수출순위 15위의 국내 최대 가발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가발산업의 사양화, 경영진의 외화도피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70년도에는 4,000명이던 노동자들이 75년 1,800명, 78년에는 500여명으로 격감되었다. 회사는 계획적으로 감원을 시도하여 77년에는 가발공장을 벽지로 옮기는 수법으로 500여명을 해고시켰고, 작업을 하청공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위장휴업을 하면서 감원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노조는 78년 5월 대의원 대회에서 회사측에서 수출량은 증가하면서도 노동자들을 계속 감원시키는 저의를 밝히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노사합의하의 휴업, 본공장 확대, 인원감소보충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회사는 79년 3월에 4월말로 폐업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노조는 사업장 폐쇄는 600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기업측의 무책임한 경영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게 YH무역을 은행관리기업으로 인수하든지 부채상환을 늦추든지 아니면 고용승계 및 임금청산을 조건으로 경매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4월 13일까지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반응을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이들이 아무런 해결노력도 보이지 않자 분노하여 생존권 수호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강제 해산이었다. YH노동자들은 다음날부터 주간조업, 야간농성으로 들어갔다. 그 후 관계기관과 회사측은 임기응변으로 폐업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다가 8월 6일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했다. 좌절과 분노속에 노동자들은 8월 7일 이후 기숙사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도 강제해산시키려는 꾀새를 알아차린 노동자들은 최후로 신민당사를 찾아가기로 하고 8월 9일 새벽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포 신민당사로 찾아갔다. 9일을 그곳에서 철야농성을 한 후 다음날 오후 회사의 박정환 사장과 면담을 한 결과 "회사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공들은 작업성적이 나빠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해결방안은 찾지 못했다.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전 상태에서 밤 10시 40분 긴급집사총회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감정으로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가 김영삼총재등 신민당의원들의 설득으로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새벽 1시 58분 자동차의 크락손소리를 신호로 소위 101호 작전이 전개되었다. 서울시경 산하 1천여명의 정사복 경찰관들이 정문 출입구로 밀고 들어와 신민당 직원들과 충돌하며 4층으로 올라가 반항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또한 2층 총재실에 들어가 국회의원, 신문기

자 가릴 것 없이 폭행 구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징경숙양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작전은 23분 만에 끝나고 난입 직후 청소부들을 데려와 당사 주위를 말끔히 정리하여 그 흔적을 없앴다.

그후 연행된 노동자들은 강제로 퇴직금을 받고 귀향조치를 당했으며 노조간부 몇명과 이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몇명의 지식인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 신민당사 난입사건은 70년대를 장악하고 그 정치 경제구조의 정점에 섰던 정권이 붕괴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YH노동자들의 투쟁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절정이었으며 80년대 노동운동의 길을 제시해주는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V. 맺 는 말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성격은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폭발적인 사회적 파문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일회적, 비조직적 운동과 대비된다.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이 급증하고 조직적이고 격렬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여성노동자의 숫적 증가가 중요하다. 이는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정책이 섬유, 전자 등의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하므로써 여성노동자의 수가 증가되어 운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었다. 둘째로는, '81년 현재 남성에 비해 월평균 11,2시간이나 더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의 44.8%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더욱 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각종 인격적 모욕과 폭행 등을 당하므로써 생존권 확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여성들의 격렬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셋째는, 노동운동이 보위법 이후 강력하게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노총이 허구적 노동조합주의에 빠져 무력화·어용화된 속에서 도시산업선교회 및 카톨릭 노동청년의 등 종교단체와 크리스찬 아카데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등의 외부교육기관 및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 등이 꾸준히 노동문제에 관

심을 갖고 민주노조 및 일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나 외부교육기관에는 초기에는 많은 남성노동자들도 참여하였으나 차츰 관과 상층조합, 회사로부터의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기관을 탄압하자 차츰 여성노동자들 중심으로 대체되어 갔다.

70년대의 끝자락이 어려운 노동상황에서 남성노동자들 보다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된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흔히 남성노동자들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결과적으로 해고의 위협에 대해 소극적 또는 체념적 자세를 견지하게 했던 데 비해, 여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이 여성노동력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종적이라는 이론과 모순된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노동자들은 자연발생적인 운동으로부터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민주노동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이 차지한 역할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즉 70년대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속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폐쇄·어용화되어 기층노동자들의 요구를 배반하고 운동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민주노동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지속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운동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민주적인 운영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부분 여성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민주노동운동의 기본적인 힘은 조합원들의 고양된 의식과 단결력에 연유한 것이었고 따라서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둘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여성 지위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온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되

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의 생산 활동에의 참여는 생존권 확보와 권리투쟁을 통해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없이는 근본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여성노동자가 조직에서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써 여성이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째, 기존의 여성운동이 여성노동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과제로부터 70년 후반기에 여성노동운동에 대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사법들은 여성운동 자체가 제 제도에 도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는 여성노동운동에 있어서의 과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운동에 격렬하게 참여하므로써 의식이 고양되었으며 양적인 확산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철저한 권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사회구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 위에 장기적인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노동운동이 여성지도자들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의 일시성, 단기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결혼 전의 일시적 과정이라는 의식을 깨지 못한 측면과 더불어 너무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결혼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자가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혼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산전·산후휴가 등의 모성보호 및 시설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역시 여성노동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실현이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은 단순노동이 중심이 되어가고 저임금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는 값싼 여성노동력의 취업을 요구하므로써 숙련노동력 및 남

성노동력을 구축한다는 객관적 논리를 갖고 있다. 한편 여성은 미숙련노동 및 숙련노동에 있어서도 노동영역의 확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성이란 이유로 저임으로써 남성노동력을 구축하기 보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때 여성임금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남·여 분열적 요소이다. 이는 자본이 노동자의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 남성우월의식을 고무시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여가 단결하여도 어려운 시기에 분열은 운동의 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할 때 노동자의 힘은 오로지 단결된 머릿수이다. 그러므로 남성이 떨어져 나갔을 운동의 힘을 반감시키는 것이고 또 그 남성이 외부의 적을 대신해서 싸움을 걸어 올 때는 두 개의 적이 생기니 만큼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운동에 있어서 남·여가 함께 단결해야 함은 필연적인 것이며 남·여 모두 남·여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동지로서 함께 노동운동의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운동단체 등에 있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좀 더 고조되어야겠다. 물론 '77년 남영나일론 사건에 대해 YWCA 등 6개 여성단체가 사건에 관여하므로써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선행도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단체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역할과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여성노동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선전활동 등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70년대의 노동운동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을 미흡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여성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성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의 전개는 여성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은 커지고 있으며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위에서 방향성을 갖고 사회변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 3 세계 여성운동 시론

편집자주

제 3 세계 여성운동을 연재 기획하면서 이번 호는 총괄적인 시론과 함께 사례연구로 칠레여성운동을 실기로 한다. 논의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자료가 극히 빈약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총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 3 세계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에 약간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성급하게나마 시도해 보았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칠레여성운동을 기획하게 된 것은 이 사례가 특히 중요하거나 여성운동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각 국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의 도입부로서 설정된 것이다.

I. 제 3 세계 여성운동 고찰의 의의

1975 년은 세계여성운동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해였다. 1975 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해"임과 동시에 멕시코여성선언으로 여성운동이 크게 서구자본주의 여성운동과 제 3 세계여성운동으로 나뉘어지던 해였다. "세계여성의 해"가 지정된 것은 여성의 억압상황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이제 몇몇 여성들의 외침이 아닌 세계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수 많은 여성들이 200여년 동안 묵숨과 맞바꾸면서 부르짖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해결되었음과 아울러 여성들의 억압이라는 것은 한 국가 내지는 특수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류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보편성을 띠는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975 년 UN여성총회에서 선진자본주의 제국 여성들과 제 3 세계 전 여성들은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 3 세계 전 여성들이 따로이 모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문제가 전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억압의 양상, 그 해결방안들이 각각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여성운동은 특정의 역사적 국면에 있어서의 생산관계와 남성과 여성사이의 관계라는 두가지 관계와 함께 그나라의 특수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는 다른,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올바른 여성운동들의 정립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제 3 세계 여성의 상황과 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제 3 세계 여성운동에 대한 고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여성운동론으로 곧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공업화가 훨씬 진전된 신흥공업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성격이 일반적인 제 3 세계의 사회경제적 유형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먼저 서구 여권론을 살펴보자.

18C 말에 대두된 사회계약설은 기존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인간의 타고난 불변의 권리를 주장하여 봉건영주나 절대왕권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싹트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여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시민계급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러한 천부인권설은 여성들의 의식을 새롭게 각성시킴으로써 여성운동이 태동되게 하였다. 그런데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여성인권선언'으로 시작된 여성운동은 각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사회계약설 자체가 시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었고 또한 새롭게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층이 그들이었다는 데서 자연 시민계급 중심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여성운동의 주된 내용과 과제는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에 있어서의 동등권 요구로부터 기회의 확대와 차별철폐의 철폐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나가는 것과 발 맞추어 많은 부분들이 성취되었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성문제가 남성과 여성사이의 문제(남녀차별)만이 아니라 생산관계와 중첩되는 문제임으로 인해 남아있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여가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운동양식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여성대중을 소외시키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제 3세계의 여성은 서구여성과는 대별되는 또다른 차별적 위치에 놓여있다. 식민지침탈과정을 겪으면서 이식된 자본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처럼 고유한 발전유형을 갖지 못한 제 3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됨으로써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제 3세계 - 식민지과정을 겪은 후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지만 새로이 제국주의에 의해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제국 - 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 외채, 다국적기업의 침투, 관광

산업의 발달이라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 3세계 여성들은 격심한 빈부격차에 의한 계급의 양극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빈곤의 문제, 외세에의 종속관계문제, 국제적인 성적 착취문제 - 다국적 기업에서의 저임금, 비공식노동에의 참여 증대, 국제적 수출의 증가 - 등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운동도 서구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중산층 여성에 의한 남·녀 차별철폐 내지는 여성의 법적 제도적 평등을 위한 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제 3세계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여성운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II. 제 3세계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운동의 유형

제 3세계의 여성들은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여성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 그것은 성의 문제는 노동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생산양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차별은 여러 계층으로 분열된 사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계층간의 모순은 성적인 모순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여 각 사회내의 특수한 차원의 문제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의 특수성은 자국의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성운동도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 나타나게 된다.

1. 제 3세계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 3세계 국가들은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겪음으로써 자국내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서구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자본주의 발달이 왜곡되게 되었다. 화폐경제 침투로 인한 농촌경제의 해체과정에서 외국인 지주, 봉건적 지주에 의한 단일경작 체제의 플랜테이션 경영이 수립되면서 농업노동자가 창출되고, 축출된 농민은 미

약한 형태이긴 하나 도시에 형성된 소비재산업에 일부 흡수되어 부분적인 도시여성노동자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상태는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을 취하는 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는 이전의 상품시장, 원료공급지에 더하여 자본수출의 시장으로까지 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수출 대상으로서의 식민지는 자본계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것이지만 전자본계적 생산양식이 온존하게 된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보다 높은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전자본주의적 관계부분들을 경제적 예속상태의 제 3세계로 넘김과 동시에 제 3세계 국가의 경제 역시 불철저한 자본계 혁명으로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본계적 생산양식의 온존은 자본주의의 대등한 계약관계로서의 자본·임노동의 관계라는 이데올로기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자본계적 관습과 사고를 남겨놓아 경제외적 강제를 동반한 노예노동에 가까운 정도의 불평등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에 더하여 선진국의 초과이윤 획득을 위해 제 3세계로 침투되는 다국적기업은 제 3세계에서의 여성노동력을 더욱 주변화시키고 있다. 초기 산업 자본주의하에서의 여성임노동자와 과정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특히 섬유공업에서 다량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제 3세계의 경우 자생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이 차단당한 채 외자나 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근대적 공업화가 이식됨에 따라 여성노동력이 흡수되는 기간이 생략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어 광범위한 산업에비교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비공식 노동부문에 흡수됨으로써 더욱 혹심한 수탈을 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기능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내의 여성노동은 전자본주의적 관계에 남아있게 된다.

자본주의는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도모시키

며 그에 따른 문화도 온존시킴으로써 여성대중을 계급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멀리 배어 놓으며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남미의 경우를 보면 스페인·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강하게 침투한 카톨릭시즘이 이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여 machismo-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남자들의 생각-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여성의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제 3세계의 계급상황과 접목시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해본다면,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급속히 이루어진 계급분화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장 밑바닥을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촌경제의 해체로 농업부문에서의 외국인 지주나 봉건적 지주가 남게 되고 농촌에서 축출된 농민들은 도시부문의 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흡수되어 노동자층이 형성되고 특히 서비스업의 확대로 이에 종사하는 도시빈민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기층대중(공업노동자, 농업노동자,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도시빈민)이 확대되는 반면, 농촌에서의 지주를 포함한 부르조아 계급은 소수를 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극화된 계급분화의 구조속에서 여성대중은 최하의 계급을 점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계급구조에서 극소수의 부르조아계급은 자본계적 생산양식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계급적 이해에 의해 제국주의와 밀착하는 매관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외세에 의한 파행적인 자본계화, 경제의 대외의존성, 양극화된 계급구조 창출 등으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외세와 매관독점자본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독재정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하에서 여성대중은 가장 억압받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2. 제 3 세계 여성운동의 유형

이러한 제 3세계의 복잡한 모순관계의 정도에 의해 각국의 여성억압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전개방식도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본장에서는 제 3세계에서 전개되는 여성운동을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념)과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기준 속에서 유형화시켜보려 한다.

우선 이념의 문제를 살펴보면, 여성문제를 어떠한 모순관계로 파악하는가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입장은 여성문제가 남녀의 차별문제로서 여성의 지위향상, 법적 보장으로 해결 가능한 것임으로 체제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입장은 제 3세계에서의 여성문제는 제국주의와 독재정권, 경제적 억압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성적 모순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이러한 모순구조를 파괴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첫번째 입장과 대조될 수 있다. 또 운동의 주체라는 기준에 따라 여성운동의 주체도 소수의 중산층여성인가, 대다수 기층대중여성인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장에서는 여성운동을 부르조아 여권론적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반(反)여성운동으로 나누기로 한다. 그러나 이 분류가 전형적인 것은 아니고 제 3세계 여성운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국별 여성운동을 검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여성운동은 식민지·반식민지로부터 형식적 독립을 위한 이후에 전개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식민지·반식민지 과정에서 바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간 나라의 여성운동은 제외시켰다.

1) 부르조아 여권론적 여성운동

교육기회의 확대, 참정권 요구, 교육기회의 균등, 남녀차별 철폐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여권운동은 교육받은 부르조아여성들에 의해 일어났다. 이와 함께 발전은 곧 서구화로 인식되어, 서구와 같은 발전을 이루려는 서구화의 시도로써 정부에 의해 장려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여권운동은 여성교육기회의 확대라든가 법적인 권리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등을 얻어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

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미성숙과 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온존으로 계급분화가 미발달되거나 부르조아가 강력한 계급을 형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르조아에 의한 여권운동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또한 대다수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수의 엘리트여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부르조아 여성운동은 요구했던 목표가 달성되면 그 운동이 사라지거나 권력과 밀착하여 어용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유형의 예로 칠레초기의 여성운동과 도미니카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20 C 초에 칠레의 '퀴부인 클럽'이라 일컬어진 모임의 후계자로 알려진 지배계급의 여성들에 의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1920년에 투표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벌였으나 이혼할 권리등과 같은 일반여성 대중들에게 큰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일반대중들에게 도덕을 침해하며, 가족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1월에 투표권을 획득하게 되자 더 이상의 운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도미니카의 여성운동은 강한 정치성을 띤 것이기는 하였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에 선거권을 획득하고 1945년에 도미니카당에 여성분과가 설립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도미니카 여성행동체」라는 여성단체는 18세 이상의 품행방정한 여성에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낮은 계층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폐쇄성을 보였다. 이 단체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매춘·기아·여성교육 등 사회문제에의 접근을 결여하고 있었다. 1966년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에서 여성표를 획득하기 위해 하층계급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선거후에 여성단체의 지도자급

* 「도미니카 여성행동체」 - (Action Feminista Dominicana)

여성 26명은 고위부서에 흡수됨으로서 여성운동은 관계화·어용화되었다.

2) 사회주의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론은 여성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만 파악하지 않고 제3세계적 모순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 독재정치하에서의 정치적 억압, 독점자본에 의한 계급억압, 전자본제적 생산양식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제국주의의 타도에 의한 민족해방, 독점자본 축출에 의한 계급해방, 독재정치로부터의 민주주의정권 확립을 근거로 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종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것은 제3세계에서 제국주의와 독재를 전복하려는 일반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운동의 주체도 복합된 모순고리에 의해 가장 억압받는 집단을 형성한 기층대중 여성으로 상정되며 이들에 의해 주로 운동이 전개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여성문제를 사회적 모순의 복합체로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여성운동의 독자적 영역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즉 위에서 상정한 세가지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문제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단지 여성이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됨으로써 유교적 봉건성이나 Machismo(남성우월주의) 등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혁명운동에 뛰어남 여성지도자들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예로 베트남과 쿠바의 여성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노바협정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 베트남에 디엠정권이 들어섰다. 1959년에 형성된 민족해방전선(NLF)은 여성을 베트남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여성들에게 경제·정치·사회·문화·가족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LF내의 여성해방연합(WLA)은 제국주의와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립과 경제적 향상을 꾀하였다.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WLA는 부락차원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시장·도시를 공략함으로써 1965년에는 회원이 120만여명에 이르렀다. WLA는 베트남에서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건적 관계의 해체와 함께 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WLA의 활동은 1975년 남 베트남에서의 디엠정권이 무너지고 북부에 의해 통일되면서 공산당내의 여성운동과 일치하여 전개되었다.

그리고 쿠바의 여성들은 1860년대의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군사위원회에 동등권을 요구하였고 그후 1920년대에는 참정권운동이 전개되어 34년 선거권이 확보되었지만 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기층대중 여성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후 여성들은 바티스타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에 여성해방이라는 목표와 제국주의·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이때 참여한 여성들은 농민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기층대중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1959년초에 바티스타정권이 몰락한 후 사회주의의 실현과정에 여성들은 여성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반(反)여성해방적 여성운동

여성운동이 여성해방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가정할 때 우선 조직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조직된 힘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규정되어야 한다.

반여성해방적 여성운동은 그것이 조직된 힘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조직된 힘의 성격이 여성해방을 위한 방향성과 이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여성들의 조직이 스스로의 해방의 과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체제전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몇몇 소수의 이익보전을 위한 친위대적인 역할을 할 경우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칠레를 들 수 있는 데 사례연구에 나오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세가지로 나누어 본 여성운동의 유형은 한 사회에서 일면만, 그리고 단선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담당주체의 성격에 의하여 한 유형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몇가지의 유형들이 상호 연속·대립하면서 전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여성운동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운동이 전체사회운동과 통일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을 위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기로 하자.

III. 제 3 세계 여성운동론의 모색과 전망

앞서 제 3 세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 후, 여성운동을 부르조아적 여권운동이나 사회주의 여성운동 등의 분류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어느 정도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 부르조아 여권운동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어떠한 이유일까? 또한 여성운동은 앞서 분류한 것처럼 하나의 계급, 하나의 체제를 지향, 선택해야 된다는 당파성을 띤 수 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한 나라에 특수한 계급적 역학관계와 체제지향 또는 변혁적인 사회운동의 특성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분석에 따라 여성해방을 위한 전형으로 어느 하나를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운동에 대한 모색은 과거운동의 한 유형을 그대로 전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에 대한 비판점의 극복과 함께 현실인식에 기초한 이념의 재검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성과 계급과 민족해방이라

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념적 원칙성에도 불구하고 계급해방이 우선시 됨으로써 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또한 계급이 해방되면 성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부르조아적 여권운동은 그것이 기층대중의 모순을 간과하고 철저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성의 문제' 해결이라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며 또한 초기에는 여성대중을 여권적 자각체로 통일시킨다는 장점 또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부르조아 여권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양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운동론 모색은 제 3 세계 여성운동의 구조적 인식 위에 그 구체적 모습을 띄며 나타난다. 제 3 세계의 여성운동은 성과 계급의 중층적 모순구조 위에 정치·경제적 대외종속에 따른 민족의 문제까지 결합되어 그 모순은 대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제 3 세계의 여성운동은 성과 계급과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시켜 해결해 나가느냐하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때야 비로소 제 3 세계 여성운동의 이념적 정작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성과 계급과 민족의 문제를 통일시켜 나간다는 의미는 이 3 가지 모순이 우선적인 비중 없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고 각 모순이 상호 연결되고 서로 영커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고리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세계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저임금·역할분업, 남성우위사상 등이 존재하지만 제 3 세계로부터 막대한 경제잉여의 유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대립·갈등이 완화되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훨씬 그 차별과 억압도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차별과 억압의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다 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녀공동 지위의 확보로 해결될 수 없는 계급과 민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급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식된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의 특성에 의해 제3세계 각 국은 일반적으로 서구형의 제급분화와 제급의 속성과는 다른 형태의 제급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3세계에서의 성차별의 문제와 제급의 문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3세계가 당면한 민족문제 즉, '정치·경제의 대외종속'이라는 데서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해방의 문제로 귀결됨을 뜻한다. 즉 민족해방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극복, 제급의 문제를 모두 통합하는 귀착점인 것이다.

따라서 기층여성을 주제로 한 제3세계 여성운동은 남성과의 지위경쟁이나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형식적 평등의 내용을 뛰어 넘어 봉건적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극복, 외세로부터의 독립,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의 독재정치 체제의 종말을 가져오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실질적 평등의 내용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념과 방향성을 가지는 제3세계의 여성운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이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뛰어난 여성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대중을 동원, 조직화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말해, 일 제급적 차원의 운동전개가 아닌, 대중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층적 민족적 성격속에서 여하히 여성자신의 문제와 전 사회운동적 차원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차별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초기의 제3세계 여성운동은 일부 중산층의 운동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상부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생존권 확보운동을 통해 역량화하는 기층 여성들과 통일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3세계 여성운동을 수행할 주체는 성과 제급과 민족으로서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기층여성들이며 이 기층여성들에 의해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가 수렴되는 대중조직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기층의 생존권 확보운동과 여성독자의 요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철폐하는 문제와의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제3세계의 여성 인텔리겐차들은 그 이념적 토대를 이론화하며 기층여성들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다 하겠다. 성과 제급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철학적 역사적 사회구조적으로 해명하는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서서히 제3세계 여성운동은 움트고 있다. 각국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운동형태는 상이하지만, 모두 민족해방의 과정을 통해 여성자신들의 해방을 성취하려는 일념은 동일하다. 아직 완속하지 못한 여러 일면이 남아 있지만, 제3세계 여성운동의 물결은 이제 거센 파도로 민족해방운동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사례연구 I : 칠레여성운동

1. 일반사항

칠레 현대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아옌데정권의 성립이며,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은 아옌데정권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시기는 칠

레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사회주의 성립기이며, 이는 주관적으로 말하여 대미 종속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다시 연속으로의 반복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칠레여성운동

도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격동기에 여성들의 존재행동 양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칠레여성운동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칠레의 일반적 사회성격을 아옌데정권기(1970. 9 ~ 1973. 9)를 중심으로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옌데이전의 칠레사회는 한마디로 미국에의 종속경제의 심화과정과 이에 따른 정치적 지배변용으로 말할 수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다행히도 1920년 이래 출몰 선거에 의한 정권성립의 전통은 고수되었지만 선거시마다 기대와 실망, 배반이 되풀이 되어 결국 다양한 성격의 정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경제적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미 300여년의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원자재 수탈과 독립후에도 동광산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의 침탈로(실로 미국은 칠레의 주요 수출산업인 구리의 80%를 차지) 이미 고질화된 칠레의 파행경제 구조는 그대로 온존되면서 계속적인 예측의 심화과정으로서의 '종속적인 발전'의 공업과 이에 반하여 농업의 상대적인 정체상태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경향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과 결합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더욱 큰 규모로 진전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칠레의 제조공업 등에 보다 깊이 개입하게 되고, 저주=부르조아적 자본가와 깊이 연결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대중은 농촌의 대량실업, 도시빈민가 팽창 등의 현상 속에서 이러한 경제구조의 모순을 전담하여 상대적으로 중립의 최악단계를 치달고 있었다.

칠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민의 계급적 성격이다. 우선 개방된 민주적 복수정당 체제로 인해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며, 또한 이러한 정당간 이해가 산만함으로 인해 이에 대응할 정책이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배경에서 거대한 도시 중간층들도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기에는 이들 거대층이 상당한 급진화 현상을 겪으면서 아옌데승리의 일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이들 거대층은 다시 반체제적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아옌데정권 전복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칠레에는 조직노동 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칠레노동자는 정치에 대한 참가가 비교적 빠르고 또 양적으로도 많았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칠레의 경제구조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칠레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광업으로 이는 국내총생산, 수출, 재정수입 등의 제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업부문의 핵심은 동생산이다. 이같이 중요한 자원산업을 담당하는 광산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탄력적으로 지속되었으며, 특히 1936년에는 군소노동조합의 조직을 통일시켜 '칠레노동자 연맹'을 결성하여 전국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편 1920년대부터는 농민운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33년 농업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화되면서 조직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들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기면에는 여기에 충분히 충원되어야 할 인원들이 실업자 반 실업자군을 이루며 도시의 거대한 빈민대중으로 압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 위에 1970년 선거를 통하여 *칠레 인민연합의 아옌데가 선출됨으로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는 기존사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민대중을 지향하는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한다는 염원으로부터, 특히 조직노동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성립된 세계최초의 실험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아옌데정권은 우선 국민대중의 생활개선 작업에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여 칠레의 오랜 난제인 종속경제 구조를 타개해 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일반대중과 깊게 관련된 물가, 임금, 고용, 복지, 교육, 주택 등의 문제에 적극 노력하여 그 결과, 대중의 구매력도 어

* 인민연합(Unidad Popular)은 공산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급진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 행동운동 등의 6개정당이 결성한 선거연합으로서, 그 강령은 사회당, 공산당의 주장대로 '제국주의, 독점, 과두지주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철레여성운동

느 정도 상승시키고, 71년에는 전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8.6%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2년간은 국민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착실히 성장해 나갔으나,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중간층을 흡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의 지지기반은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칠레의 근원적 경제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산업의 국유화(구리산업의 국유화, 제지산업의 국유화 등), 국내 거대·중요산업을 국유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깊이 연관된 미국과의 갈등(군부를 통한 쿠데타음모 실패, 칠레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농지개혁(85%의 농지를 9.7%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라티퐁티아를 개혁하여 결과적으로 전제농지의 35%가 재분배 되었다)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나 이는 국내 외적인 저항과 크게 충돌하여, 결국 아옌데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2년 남짓의 피나는 노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근원적 경제구조의 예측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으로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 또한 시초의 공산당과 사회당의 통일 노선이 분리되면서 큰 정치·경제적 혼란을 맞게 된다.

아옌데정권의 취약점은 중속경제구조 탈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가 다양한 세력들을 기반하고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는 제한계를 지니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트럭운전자 조합의 임금요구를 따르는 한편, 트럭업주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 이리하여 정치적 위상이 낮고 반면에 경제적 욕구는 강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에 또 다른 일격을 가하는 것이 도시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정부 공세이다. 즉, 인민연합의 내부대립이 격화됨에 반하여 반인민연합측에서는 오히려 절속이 강화되고 힘의 재편성이 진행되었다. 반인민연합측의 최대의 기반은 상점주, 중소기업주, 자유업자 등의 동업조합에 있었다. 이들은 신경제정책으

로의 전환에 의한 물가상승 등의 경제혼란을 이용하여 아옌데정권을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원흉'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정부공세에 나섰다.

또한 칠레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는 외세는, 이러한 보수적 도시 중간층의 반정부공세를 기반으로 하여 군부세력을 부추기어 군부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되며, 결국 아옌데정권은 붕괴되고 만다.

2. 칠레여성운동

칠레여성운동은 반(反)여성해방적 여성운동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종종 언급된다. 다시 말해서, 칠레여성운동은 과두지배 계급의 여성들이 자기 계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여성들의 소심성과 가족에 대한 애착을 이용·조작하여 아옌데정권의 붕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한 말이다.

이 글은 제3세계 여성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기대와는 정반대적인 이러한 칠레여성운동의 특수한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이 조직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성 하에 그 조직의 실천이 이루어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기로 하자.

칠레에서 그나마 여성들이 모여서 조직적 운동을 했다는 외견상의 평가로 본다면 EPF(EI Poder Feminino)라는 우파여성 단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EPF운동은 아옌데정권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군사쿠데타 이후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짧은 운동복선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운동개시는 아옌데정권이 성립한 5일 후부터 대통령궁 앞에 여성들이 모여 불철주야로 침묵불침번을 하며 새정권에 대한 위협공세를 시작하면서이다. 한마디로 이들 운동의 유일한 목표는 사회주의 정권의 타도이다. 왜 이들이 새정권에 대해서 반정부세력이 되었는지는 이들 운동체 조직의 계급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PF의 지도층여성 은 저명한 상류층 우파여성(자본가의 아내, 어머니

니, 동생 등)이 중심이 되고 이들은 강력한 수적 자원을 통해 중·상류주부들로 조직을 확산시켰으며 그외 여타사회 조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끼리 조직간 유대를 통해 포섭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형성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여 앞서 얘기한 자본가 파업에 편여한 남자들의 아내, 어머니, 동생 등이 그 중요 조직구성 범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아무리 방대한 수의 구성원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이들 조직의 리더십이 결코 하층 계급여성에게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EPF운동의 성격은 자신들 계급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대다수 여성을 거대하게 동원시킨, 유일하고도 집요한 아젠다전복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면 소수의 파두지배계급 여성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시키려는 데 어떻게 수많은 여성대중을 동원시키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불가항력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비조직 하층 여성들을 대량으로 시위에 동원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여기에 여성들의 보수적 성향까지도 이용하게 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상징, 가치체계를 강조하여 '사회주의란 우리의 아들·딸들을 잡아먹는 마르크시스트적인 전체주의이며, 현재의 가족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혼란'이라고 대중선전을 하여 선동하고 보수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또한 역사적 속성보다는 자연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공동의 정의로서 모(母), 처(妻), 주부(主婦)로서의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켜 여성다움, 위대한 모성 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차이를 초월한' 근본적 단일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소시민적인 주부들에게는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가 주요한 동인이 된다. 하층여성들은 암시장과 국가배급 식량에 분개해서 가두복력을 지원, 조장했으며, 이들의 행동은 민심의 경청을 제트시키고 그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EPF는 바로 이 기제를 이용하여 이들의 좌절된 심정을 저항조직운동으로 변용하였던 것이다. 그외 중요한 동인으로는 미국의 정치자금을 원조받은 카톨릭교

회의 반정부적 선전술도 있다. 이들은 전통적 가정생활의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들을 선동했고 동시에 전통적 여성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이해는 은폐될 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의 활동이 '여성 스스로의 해방'이라는 여성해방 이념을 갖고 있지 못하여 본질상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일단 조직운동의 활동 전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목 할 만하다. 우선, 이들의 시위활동은 굉장한 것이었다. 군사쿠데타 전날의 시위 때에도 운수업자가 40,000명, 의사 등 전문직에서 90,000명, 상점주인과 소경영업자가 140,000명 참가한 데 비해 여성들은 100,000명이 참가했다는 한 예에서만도 여성들의 위력을 알 수 있다. 반정부공세운동에서 EPF운동의 중요성내지 영향력은 모든 시위 혹은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곳마다 EPF가 항상 있다는 점, 곧 지속적이며 신빙성 있는 활동태세에서 보여진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각양각색의 전술이다. 그들은 트럭운전사 파업을 지원하고, 파업자들의 식량조달을 하는가 하면, 파업 주동자들을 숨겨주고,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여 대중선전을 한다거나, 집에서 만든 악취탄을 가지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상점의 고객을 쫓는 다든지, 거리를 순환하면서 파업을 방해하는 상인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 파업에 호응하는 상점을 지켜주고, 비밀스럽게 만든 예리한 철제기구로 비시위트럭이나 정부차량의 타이어를 박살내기도 한다. 칠레의 거대한 제지회사가 국유화될 시기에는 주주회의를 조직하거나, 주주들이 주를 못 팔도록 개별방문도 한다. 또는 정부군인들에게 개인적인 야유를 퍼붓는데 조롱을 하거나, 허를 내민다든지,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기도 한다.

하여 간 EPF운동은 집요했다. 그리고 3년간의 이들 저항은 아옌데정권에 커다란 위협세력이 되었던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과연 이들 여성의 격렬한 운동결과가 여성상황 변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EPF는 아무런 긍정적인 답변도 던져주지 못한다. 이들의 활동이란 여

칠레여성운동

성해방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사상이 전혀 결여되었음은 물론이요, 보다 중요한 점은 칠레 전여성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계급적 이해를 공유하는 남성들의 반정부운동을 지지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같이 EPF운동이 격렬했을 때 소위 '좌파여성'은 어떠했나? 사실상 이 시기 좌파 내에서 독립적인 여성세력을 형성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서 좌파여성들이 방기해 둔 여성해방운동은 우파여성들에 의해 오히려 성차별주의로 왜곡된 채 그들의 동원무기로 이용하도록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보다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혁명전선의 여성들은 그들 독자의 전선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성으로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차선으로 미루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통적인 경고가 될 것이다. 사회운동을 하는 많은 여성들은 비록 남성과 함께 활동을 할지라도, 여성을 어머니로서, 소비대상으로서 경정시키고, 남성애완용으로 모욕을 주는 정부의 선전행위를 꾀어부술 강력한 여성독자의 선전이테올로기를 갖지 못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해방'은 계속 왜곡되고 불확실해 질 것이다. 칠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치밀한 이론, 전략 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산층 여성들의 이해관계를 고수하기 위한 여성해방으로 잘못 해석되어 도용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칠레좌파가 자각해야 할 사실은 그들 저항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성운동을 담당할 무제한 인식과 실천을 겸비한 운동가의 양이 증대되지 않는 한 진정한 여성해방은 요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3. 평가

제3세계에서의 여성운동은 사회운동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정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히 민족자존의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운동의 급박한 절대 필요성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성운동은 자못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레의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여성운동이 사회운동 속에서 자기성격을 갖지 못하면 여성운동은 차선으로, 혹은 분파적·고립적으로 위급되게 된다. 여성해방의 과제가 충분히 숙고되지도 숙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좌파의 여성에 대한 무관심, 정책의 소홀과 이에 기선을 잡은 우파는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반여성적 공격으로 대중여성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결국 여성해방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칠레에서 EFF에 의해 이루어진 여성운동을 반여성해방적 여성운동이라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의해서이다. 첫째, 이들 운동은 다수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상층여성의 계급적 이익과 결부된 반대중적 여성운동이다.

둘째, 이들 운동에서는 소위 여성해방 이념이 결여되어 있다. 운동의 집요성, 격렬성, 고도의 동원율에도 불구하고 그 대다수 운동원들에게 여성적 자각이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봉건적이고 복고적인 구호로 여성들을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이라는 전략적 차원의 여성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부전복의 도구로써, 전술적인 공격단위로써, 진정한 여성운동이 아닌 하나의 '여성조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여성운동의 결과로서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사회주의정권 하에서 보다 더 후퇴를 가져왔으며 그나마 조직조차 해산이 종종, 강요되어 유야무야해져 버렸다.

칠레 여성운동에서 아주 특수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성격은 칠레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는 시·공적 제한성을 가지지만 운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MBC 시위사건과 여권운동의 방향

1984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약 200여명의 서울시내 신문방송학과 여학생들이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에 항의하여 MBC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항의시위(picketing)를 하였던 일은 의외의 충격을 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 동성자체의 결과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띄는 시사점에 의해서이다.

이번 MBC 시위사건은 언제나 당해오던 불평등을, 심지어는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버리고마는 고질적인 '취업상의 남녀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생산적 여성의 '취업 후의 차별과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대졸여성들의 '취업기회의 차별과 박탈'에 대하여 최초로 조직적인 항의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된 대졸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안주해버리고 마는 현실에 대해 반기를 들며 여성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실권과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여권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그나마 기존여성단체의 문제제기방식보다는 다소 과격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끝이어 '대졸여성의 취업문제'는 사회로 이전되어 여러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의 대화모임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모임은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데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반면 이 모임들은 여성단체가 사회여론화, 압력의 역할 이전에 '남녀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함으로써 현 여성운동의 정당성 즉, 이론적인 무기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

시 학생들만큼이나 미숙하고 덜익은 여성운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MBC 사건은 이런 미숙한 여권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차원을 넘어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철폐'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여권운동의 방향성을 다듬어갈 수 있는 일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MBC 시위사건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흥미해 볼 만하다.

1. MBC사건의 경위와 결과

만남의 계기: 84년도 MBC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아나운서, 미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여성을 배제하여 고용기회를 주지 않자, 이에 분노한 고려대 신방과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소위 학생운동의 흐름 속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A학점만 받고 착실히 개인의 성취를 일망하던 이 여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 노력과 능력에 대한 보상이 기회의 박탈로 나타나자 새로운 사회적 자각에 준뜨게 되어, 단체행동에 대한 모색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불평등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계기는 분산된 이들을 단체로서 조직으로 묶어주어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만남의 시작(10월 26일): 10여개 서울시내 대학의 신방과 여학생들이 모여 'MBC의 이번 처사는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여성차별현상과 공익의 토대 위에서 사명을 망각한 언론의 단적인 모습이다'라는데 일치를 보고 일정한 대응양식을 구상하였다. 항의 방법은 피켓시위로 하기로 하고 언론사내의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여성단체 및 여기자에 호소(11월 11일) :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처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조선일보의 여성취업문제컬럼에서 기사화된 것을 보고 다시 연락하여 호소문 형식을 띤 공문서를 보내주길 요구하였으며 여성평우회·YWCA 사회문제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성명서 작성과 서명운동(11월 3일~11월 13일) : 현재의 모임을 '신문방송학과 여학생협의회준비위원회'로 규정하고 성명서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성명서에서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에서 출발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언론에 대하여는 여성을 응시대상에서 배제한 부분뿐 아니라 왜곡 보도 및 KBS에서 3년간 공채하지 않은 것까지 언급하여 11월 6일에 배포를 시작하였다. 모임의 과정에서 과연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까로 고민하였고 준비위원의 대표성여부도 논란이 되어 피켓시위를 포기하고 서명운동으로 그쳐버릴까도 생각했으나 서명운동의 한계를 생각하며 피켓시위로 결정을 굳혔다. 그간 서명운동은 교수 및 남학생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MBC, KBS 에 면담요청건의문 우송과 여의도 관할 파출소에 집회신고(11월 14일~11월 19일) : 피켓시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자고 하여 MBC, KBS 에 회담을 요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시위하기로 결정을 굳히고 19일 관할 파출소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켓제작, 메가폰준비, 구호선창방법 및 진행담당을 각 대학별로 역할분담하고 20일 11시 MBC 에서 1시간, KBS에서 30분 농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MBC 피켓시위와 '신문방송학과 여학생협의회' 창단(11월 20일) : 200여명의 여학생들이 MBC 열 삼부아파트에 와서 응성거리자 영등포서 정보계에서 나와서 '불법집회'나 '주동자는 처벌하겠다'나 하며 위협하자 모이진 모였으나 어쩔줄 몰라하던 여학생들이 오히려 반발하며 모두 연락하여 농성할 준비를 하였다. 집회신고하였음을 이야기하자 '집회는 허가'라며 으름장을 놓

고 남학생이 없는 것을 안심한 정보과장 등이 몽둥이와 힘으로 여학생들을 쫓아냈다. '주동자' 3명은 영등포서로 넘어가고 구호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20~30여분만에 해산된 여학생들은 참혹한 패배에 좌절·분노하면서 100여명 이상은 연세대로 가서 '신문방송학과 여학생협의회' 발단식을 가졌다.

피켓시위이후의 사건전개 : 사건이후 MBC 측에서 신방과 교수에게 연락하여 '면담요청에 응하려고 하였다.' '경찰은 우리가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시경이나 영등포 경찰서 관할이다'라고 변명하면서 신방과여협 구성원에 대한 개별면담접촉을 시사하였으며 KBS 측에서는 88올림픽방송요원을 남녀차별없이 뽑겠다고 이화여대 신방과로 연락하였다. MBC의 면담요청이 회유정책이 아니냐면서도 간부직 몇명은 대표자적으로 면담에 응하였으나 MBC는 이들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다. '여성배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그것은 연구해 보겠으며 대화의 창구로서 '이야기 좀 합시다' 프로그램에서 그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는 등에서 면담은 끝났다.

그후 신방과 간부진이 개별 면담에 응하여 그중 몇몇은 MBC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는 소문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고용기회차별'에 대한 항의가 이제 신방과 여학생들만이 감당할 수 없을 만치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이전이 되었다. MBC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 한번 하지않고 언론매체 특유의 능숙한 방법으로(대화모임이라는 방법으로 2시간 50여분의 토론을 50분으로 축소하는 등) 교묘하게 문제제기와 책임에 대한 답변을 피하여 갔다. 현재 신방과 여학생협의회는 자신들이 미숙하고 조직이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앞으로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실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1회적인 조직이 아니라 일감 위주의 조직 성격을 띄는, 단체 성격의 여학생 모임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여협에서의 '취업상의 남녀차별에 관한 토론회'

MBC 시위사건은 '고용기회에서 남녀차별' 즉 대졸여성의 취업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여협에서 11월 20일 '취업상의 남녀차별에 관한 토론회'를 가련하였다. 약 4시간에 이르는 열면 이 토론회는 이때까지 여협이 임해온 방식상 여론환기의 의미조차 뛰어넘지 못했지만 진행된 토론의 내용상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당사자인 MBC, KBS 측은 보이지 않고 노동부, 노총, 경영자총협회, 신방과 학생측, 대기업인사부 등에서 토론회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첫째, 출산, 육아, 가사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둘째,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이 과잉보호가 아니냐 라는 것이었다. 첫째의 문제는 기업측이 국가로 그 책임을 전가하여 국가가 보장을 해 주지 않는 한 여성들을 고용할 수 없다. 그것은 기업은 윤리적인 단체가 아니라 돈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자본의 착취적 본성을 드러냈다고 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열면 토론을 불러 일으켰던 두번째의 이유는 발제자인 고대 신방과 학생이 대졸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모성 과잉보호조항으로 인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라고 발제한데서 비롯되었다. (경영자측의 주장과 일치) 이에 김근화(노총, 여성부장) 씨가 생산직여성의 현실을 통계 및 기타 자료를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보장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그러한 현실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황한 주최자측은 '근로여성의 문제가 얼마나 풀아터졌나'로 비약되면서 토론은 요점을 벗어났다. 그리하여 대졸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층 여성문제와 대립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치스러운 것으로 되어 토론은 하나의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경영자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그 대학생의 발제(신방과 여협에서 합의가 된 발제

인지는 확인이 안됐지만)는 대졸여성은 생산직 여성에 비해 취업기회자체가 봉쇄당하기 때문에 취업후에야 어찌되었든 일단 취직이라도 하고보자는 사고방식에서 발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대졸여성에게 있어서 취업기회와 모성보호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대졸여성들이 연령상으로 보아 취직후 곧 당면하는 결혼·임신 등에 대한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다.

3. 아카데미하우스의 '한국여성의 고용차별의 근저'

85년 1월 21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위의 주제로 대화의 모임이 열렸다. '대졸여성의 취업문제'가 매스컴에 심심찮게 대두되면서 그러나 전담할 여성단체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화의 모임」으로 넘겨졌던 것이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여성학교수들과 각 대학의 여학생감 및 여성단체의 간부 그리고 MBC 사건 주제자들이 모였는데 여협에서의 성과없이 유산된 토론회에 비해 다소나마 다듬어진 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하나의 문화」가 많은 관여를 하면서 주도했는데 그것은 생산직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졸여성의 문제 또한 여성운동적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그 구체성과 실천성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대졸여성의 취업문제를 전담할 여성단체에 대한 구상이라 하겠다. 이날 모임에서 그 대안으로 여성의 참여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할당제가 제시되거나 여성고용 촉진법의 추진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계속 연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남녀차별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사회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화해 생각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대졸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여성적업교육전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여대생들의 제사회화교육을 맡으며 가사·육아의 해결을 위한 탁아소성립의 문제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은 더욱 진전을 보여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 단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풍토를 개탄하고 여성운동내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져 각 계층별, 주제별 전문·전담기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여성운동은 연계적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결과 '대졸여성의 취업문제'를 여성사회연구회에서 전담하여 압력역할, 여론화작업등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

이날의 대화모임은 여협에서처럼 중산층여성과 생산직여성이 대립되는 듯하여 문제가 흐려져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엘리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및 전문직 여성들이 모였다는데서 일정한 성격과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문제해결의 방향성과 방법을 주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만 검토하였으며 여성들의 의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여대생의 재교육, 재사회화)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한 것이 한정적 의미를 띄게 되는 배경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록 한정적인 의미를 띄긴 하나 여성문제를 각 계층별 주제별 분업과 전담을 통한 전문적 해결을 주장했다고 하는 측면은 여성운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며 역시 대졸여성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데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5. 평 가

MBC 시위사건은 195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이 대부분 무기력화 내지 어용화되어 그 '여권적' 활동에 있어 어떤 효용이나 성취를 이루지 못했던 상황하에서 자생적 여성운동의 한 맹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83년 이후 약간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여성운동에 새로운 의미

를 부가시키는 것이다.

이번 MBC 시위사건은 첫째로, 분산되고 고립된 개인의 단순한 분노를 넘어 조직적인 항의를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존여성단체의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째는, 여론환기에 그쳐버리는 기존여성단체의 운동방식을 뛰어넘어 항의시위를 조직해내었다는 점 등은 높이 살만하다.

반면 미숙한 사회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권의식'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과 그 논의과정에서 혼신을 빚어내게 했으며 모성보호조항의 과잉여부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선방과여학생협회의 일부 간부진의 MBC입사 거부 등은 엘리트여성, 중산층여성에 대한 오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까지 하고 있다.

또한 MBC 시위사건 이후 여성단체에서의 일련의 대응은 구체적 실천력의 결여를 노출시켰으며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방이후 30여년 동안 부재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여권운동이 사회계층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정착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난제로 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매스컴과 여성단체에서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흐름을 마치 한국의 여성운동을 대졸여성이상의 문제 즉, 엘리트 여성의 중산층여권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깊은 우려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기층여성(노동자, 농민, 빈민)의 문제가 여성문제의 전면으로 대두되고 여성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요구조차 소리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녀동등지위 요구의 여권운동이 전체적인 여성운동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하겠다.

여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좌절

— 협진, 유니전의 경우 —

여성노동자들이 자율적인 힘으로 조직한 민주 노조가 사업주의 집요한 탄압과 노조본부의 무성의한 태도, 당국(노동부 및 구로구청)의 방해공작으로 또다시 와해되고 노조간부가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로 3공단내 가리봉동 6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니전은 종업원이 1천여명이나 되는 회사로, 임금은 중졸 초임일당이 3,250원, 7년근속자의 경우 3,700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3일은 항상 2시간 30분씩 잔업을 하는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작업장 환경은 환기시설의 미비로 항상 납땜연기가 자욱하여 여성노동자들은 납중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만성적인 두통, 허리병, 변비,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주)협진양행은 1968년 설립되어 79년 수출 1억불탑을 수상한 바 있는 유수업체로 이 회사의 회장인 이용호씨는 11대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회사의 회장인 이용호씨는 당시 국회 노동분과위원장이었다. 회사의 근로조건을 보면 중졸초임 일당이 2,400원, 5년근속자의 경우 3,1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 한달 통상임금이 8만원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직과의 차별도 심하여 관리직 상여금이 400%인데 반해 생산직은 200%에 불과하다. 기숙사시설은 11명짜리 철산리 임대아파트를 빌려 방 2개에 평균 5~6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업장은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채 노동자들은 사시사철 얇은 까운만 걸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무릎, 통상, 등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야야××' '니미××' 등의 상스런 연사가 예사

로 통용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악조건 속에서 (주)유니전과 (주)협진양행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달결된 힘으로 최소한의 생존권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지난해 9월 1일과 18일 각각 노조결성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노조결성을 눈치챈 사업주 측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간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면서 계속적인 탄압을 해왔다. 부모를 동원해서 사퇴서를 쓰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부서이동을 시켜 현장노동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어용노조의 결성을 계의하면서 간부직을 맡게 해주겠다는 등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제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오로지 신고필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으나 구로구청은 계속 신고필증교부를 미루더니 유니전노조는 '(주)유니전'을 '한국유니전(舊名)'으로 상호를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협진양행노조는 규약중 '2/3를 1/3로' 잘못 썼다는 단하나의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을 시도했으나 사업주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고 노조간부들만 무더기로 해고되고 말았다. 해고이유는 유니전의 경우, 노조간부들이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진실을 밝히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뿌렸다는 죄목(?)으로 협진양행은 '사척에 근거해서'라는 찰막한 이유 하나뿐이었다.

해고된 두회사의 노조간부 9명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급속노조연맹 사무실에서 '부당행위를 중지할 것'과 '노조설립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이 와중에서 김태현양(협진양행 노조 교섭부차장)이 실신

하는 등 참가자들이 탈진상태에 이르자 일단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못하고 사업주측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두회사의 노조간부중 현 윤실양(유니전 노조위원장)과 박애숙양(협진양행 노조교선부장)은 서울·인천지역 해고노동자 8명과 함께 지난 1월 14일부터 13일동안 민한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요구조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당해고자 전원을 원칙에 복직시키라.
- 노동악법 개정하라.
- 노조탄압 중지하라
- 최저임금(일당 5천원) 보장하라.
- 8시간 노동제 실시하라.
- 운전기사 생계보장하라.
- 블랙리스트 철폐하라.
- 임금동결정책 철폐하라
- 노조결성 탄압말라
- 노동3권 보장하라.
- 산재방지대책 마련하라.

이들은 또한 요구조건에 관철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저지와 노동부의 무응답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성13일만에 즉결에 넘겨져 구류처분을 받았다.

70년대이후 여성노동자들은 줄기찬 노동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단결권을 확보해왔다. 노동운동과정에서 심한 압박속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은 급속히 성장해왔다. 이제 어디서나 여성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자하는 여러 움직임들은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갈수록 안정된 노동조합활동 속에서 노동운동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험난하다. 그것은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측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장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전과 협진양행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그 좌절의 과정은 근로조건을 개선할 위한 실천 이전에 그 전체로서 이루어져야할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가 시도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들조차 처음부터 사업주측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조합활동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니전, 협진양행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은 현상적으로 좌절되었으나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여성노동자들의 실천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연약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기업만 살찌우는 악덕기업주들의 과열치한 행위는 차치하고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금속노조가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방관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주 편을 들어 노조결성을 방해한 관의 태도도 묵과할 수 없다. -생산의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파티마병원 간호원 농성사건과 사우디취업 간호원 복귀 거부

간호원이란 직종은 그들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통해 관찰되어 온 여성의 열악한 위치 및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위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정착되어 왔다.

즉 모성애를 기반으로 하여 병원내에서의 남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며 채용요건에서도 '미혼'을 못박아 '결혼=퇴직'이라는 고용구조 속에서 이미 고착적인 저임금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측에서는 이들 고학력의 간호원 외에 월 10~15만원 정도의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간호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간호원으로도 3년 기간의 전문대 출신을 채용, 학력차에 의한 임금차별을 두고 있다.

그의 결혼으로 인해 퇴직된 간호원들이 간혹 임시직, 보직, 특임이란 이름으로 재취업되는 수가 있는데 이들은 승진, 수당,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4그룹의 차등적급은 그 자체가 고용예비군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결혼=퇴직'이라는 병원측의 입장을 강화시켜 구조적인 저임금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간호원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도 작업장 내에서의 분열정책(학력차·임금차)이 이들 간호원들의 집단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어 그들의 불만은 산발적인 방식으로 밖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간호원 수급에 비해 엄청나게 양산된 이들 간호원들은 60년대 이후 '인력수출'이란 이름으로 해외취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보수라는 이면에는 궁여지책으로 수출된 이들이 다시 국내에 돌아올 경우 불가능한 재취업, 상상도 못할 현지의 악조건 등 그 실상은 결코 화려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대구 파티마 병원 간호원 농성사건'과 얼마전 휴가차 귀국하여, 사우디로의 복귀를 거부한 해외취업 간호원 사건을 분석, 간호원들이 부딪치고 있는 국내외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원 농성사건

대구에 있는 파티마 병원의 간호원들이 농성을 벌인 것은 지난 '84년 11월 7일이다. 이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병원내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150명 정도의 전문대 출신 간호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첫째, 3년기간의 전문대 출신자들과 4년제 대학 출신자들과의 임금차를 좁힐 것, 둘째, 타병원보다 낮은 야간근무수당을 인상해 줄 것, 셋째, 간호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조건들을 내건 것 이외에 농성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나 교섭과정 등은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대구 카톨릭 시보에 의하면 이들의 농성은 그날밤 8시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되어 관계기관원의 입회하에 병원장이 간호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한다.

이는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학력차에 의해 임금차별을 받게 된 전문대 출신 간호원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행동으로까지 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차를 빙자한 차등정책에 대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저임금제로 까지 그 인식이 심화됨으로써 전체적인 고용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간호원들의 초봉은 동일직내의 약사와는

달리 3년제 간호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대졸 출신들도 전문대출신의 월선 낮은 초봉보다 1호봉 높게 올려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저임금의 화살은 우습게도 이들 양집단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전문대출신들은 전문대를 4년으로 승격시켜 동일한 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문교부 등에서 이를 들어 줄리 만무하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차등정책에 의한 분열책을 뛰어넘어 이들 집단이 연대해 나가는 길뿐이며 이는 분산적이거나 임금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

한편 이들의 세번째 요구에서 보여지듯, 간호원들의 인격적 대우에 대한 문제의식은 병원내에서의 가부장제적 역할분담으로 의사, 인턴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강요받는 '여성으로서의' 간호원들의 자각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일부 메스컴에서는 '인간생명을 취급하는 의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들 간호원들의 파업은 수많은 환자들을 위협에 던져놓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의술이라는 성스러운'과 '여성들의 모성애'란 허울로 부당한 구조를 은폐시키는 노동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사우디 취업 간호원 복귀 거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에 있는 리야드센트럴 병원에 취업 중인 한국인 간호원 4백 50명 가운데 49명이 '84년 10~12월 휴가차 일시 귀국했다가 휴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를 거부하여, 1월말 현재 그중 4명만이 당국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이들 간호원들의 사우디 취업은 사우디 정부의 의뢰를 맡은 한국 해외개발공사의 알선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83년 5월 취업, 16개월만에 귀국휴가를 받은 것인데 이들의 복귀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당초 취업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 적어도 월 80만원의 보수(그외 3년의 계약만료 후 유

럽여행)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막상 가보니 하루 1~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시키면서도 취업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지급조항이 없다면서 수당을 주지 않아 월 54만원 정도의 보수밖에 받지 못한 점

- 생활이 부자유스러운 점
- 언어소통의 불편
- 현지 직원과의 마찰
- 기후불순에 따른 건강손상 등

이들은 한국 해외개발공사측의 당초 약속이 변질되었거나 취소되어 그들 사이에 '속았다'는 원성이 높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불찰이겠지만, 고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외개발공사측의 '실수'와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사우디 병원측의 행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개발공사측에서는 월 54만원의 임금수준은 다른 아시아 지역 간호원들이 받는 것(월 45만원 정도)보다 높은 수준이며 초기에는 사우디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필리핀 등의 취업 희망 인력이 늘어나면서 처우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게다가 그곳은 외국인에게도 회교 율법을 적용하여 간호원들 역시 일체의 외출, 쇼핑이 불가능하여 수녀원과 같이 그 속에서 전노동력을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해외개발공사측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작서를 받겠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해외취업이란 취업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보면 아무런 교육투자 없이 숙련된 노동력을 사오는 것이므로 그만큼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마땅히 행해져야 할 행정교섭 내지는 정치적 교섭은 외면한 채 단지 국내 또는 타국적 간호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궁여지책을 되풀이하는 정부측의 노동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각계 각 층에 가해지는 성적폭력

— 여대생, 여성노동자 추행 및 강간사건,

보호운락여성 집단탈출사건 —

요근래 여성에 대한 폭행, 그 중에서도 성적인 폭력 사태가 하나, 둘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 세대부터 여성은 육설과 모욕으로부터 매질, 회롱, 강간에 이르기까지 '힘없는 자'로서의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의 강자인 남성이 가하는 폭력을 감수하여야 한다.

여성의 역사에서, 여성 대대손손에게 가해진 힘에 의한 물리적 폭력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성적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공통으로 가해진다.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여대생들이 당하는 추행, 사업주·중간관리자·남성공원에게 수도, 회롱, 유린당하는 여성노동자, '몸팔이'에 내몰린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횡포가 그것이다.

성적 폭행은 그 성격상 폭행당한 당사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좀처럼 드러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묵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비열함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수치이거나 몇몇 여성만이 '재수없이' 당한 불행이 아니며, 또 거기에 그쳐서도 안된다. 남성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1. 여대생에 대한 경찰의 추행

지난해 11월 밝혀지기 시작한 여대생 추행사건은 사례 전수만도 예닐곱에 이른다. 9월 4일 매국방일반대 데모에서, 11월 3일 학생의 날 시위에서, 10월 10일 서울대 교문앞 평화시위에서,

10월 12일 신문로 가두 시위에서, 11월 8일 가리봉 시위에서 무차별 연행된 여학생들은 청량리 경찰서에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전투경찰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온갖 모욕적인 욕설, 성적인 회롱, 나아가 성적 폭행을 당했다.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뜯히는 매질, 위커발로 짓밟고 때리기, 옷벗기고 각목으로 때리기, 나체로 만들고 기함주기(생리중인 여학생까지도), 경찰을 향해 누워서 다리 벌리고 흔들며 노래부르기, 유방 주무르기…… 등의 온갖 방법으로 여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 모멸감, 좌절감에 몸을 떨게 하였다.

이같은 방법의 폭력은 데모하는 여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데모 저지'의 한 수단으로 성적 폭력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눈물과 수치 속에 감추어져야 할 개인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성적 폭행 뒤에 감추어진 간접적 폭력의 실체를 깨닫고,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강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억압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빈곤과 피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생산현장에서 땀을 바쳐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 10만원 이하의 임금,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긴 노동시간, 연이어지는 철야와 야근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이 허용되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노동을 착취당하는 외에 여성노동자는 심각한 성적 착취까지 당하고 있다.

84년 8월에 신문지상에는 84년 5월 이후 임금

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신원실업」 사장(김영길)에게 임금을 달라고 항의한 김모양이 폭행을 당하고 시내여관으로 끌려가 욕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지난해 1월 「대우어배럴」에서는 이곳에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욕을 당한 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회사 간부와 관련설이 파다했으나, 진상과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84년 12월에는 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민하던 끝에 19살의 김모양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세아스와니」 사건은 회사가 강간을 사주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태창메리야스 해고자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던 김덕순양은, 해고자이며, J.O.C.회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의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으나, 김양이 계속 버티자 회사의 모과장이 100만원을 주고 강간을 고용, 강간을 사주하였다. 김양을 강간하여 그 약점을 이용, 해고시키고 J.O.C.정보도 캐내려 하였던 것이나, 김양의 끈질긴 설득에 범인이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성적폭력은 위의 몇몇 사례들 만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술한 여성 노동자들이 당한 성적 폭행들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못한채로 부끄러움과 분노와 치욕 속에서 어둡게 가려져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강간이 보다 노골적으로 그녀들을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되는데, 이는 그녀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3. 매춘여성들의 집단 탈출 사건

올해 1월 20일 서울 시립동부여자기술원 운동장에서 체설 작업중이던 보호윤락여성 123명 중 48명이 집단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시립동부여자기술원은 서울시가 68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윤락여성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설립하였으

며, 최대 수용 인원이 800 명으로 원생들에게 미용, 편물, 양재등의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 (서울에서 윤락녀를 수용하는 곳은 이곳 뿐이다) 이날 사건은 새로 들어온 원생들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결정하자, 고참원생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윤락녀들 사이에 「세곡동 수용소」로 불리고 있는데, “재수없이 걸려들어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그녀들은 이곳이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가두어놓는 곳, 일종의 감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락녀들은 이곳을 나간 뒤 단순한 직업훈련을 받은 것만으로, 사회에 정상복귀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애당초 ‘몸팔이’에 밀려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매춘으로 내모는 폭력, 성적대상물로 전락시키는 사회의 폭력은 그대로 두고 몇 만명에 이를지 알 수도 없는 윤락여성중 몇백명만 잡아다가 가두어 두는 것은 그녀들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대의 모든 부건제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강간행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강간행위는 여성에 대한 침범, 증오, 멸시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여성은 폭력을 당해도 어릴 때부터의 감정적, 신체적 훈련으로 인해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폭력은 남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남성만이 심리적, 기술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며, 힘없는 자인 여성에게 쉽게 폭력이 행사되며, 이것이 성적 폭력의 정체를 이룬다.

여성에 대한 폭행, 성적 폭력이 금지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모든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헤이본 편치」 사건과 한·일관계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한일합방의 비극적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64년의 한일경제협력, 최근의 한국역사왜곡사건, 삼각안보동맹 등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요인외에 최근 일본 문화의 급격한 침투로 문화적인 문제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한일관계는 이 땅의 여성들이 일본 군인의 위안부로 끌려간 정신대의 비극에서부터 외화 획득의 명목하에 70년대부터 만연되어 온 기생관광, 수출기생 등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기생관광업은 정부의 배려하에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의 보다 고도화된 형태를 우리는 최근의 「헤이본 편치」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처음에 국내 잡지에는 벗기에 인색하던 한국 여배우들이 일본 잡지에는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는 데서 출발, 국내 언론의 충격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이라는 기사로 흥미거리가 되었다가 정부의 「헤이본 편치」 유입 금지가 발표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충격의 진상은 여배우들이 외국잡지에 벗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헤이본 편치」가 특집으로 다룬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이 한·일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특집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유혹”과 기생관광

「헤이본(平凡) 편치」는 18-22세 남자를 주 독자층으로 하는 주간지로서 저속한 대중문화

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헤이본 편치」는 '85년 1월 14·21일 신년 합병호로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이라는 특집을 게재했다.

표지에는 여배우 이보희가 일본식 화장과 의상으로 코즈를 취하고 있고 그 장을 넘기면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여의도 63층 대한생명빌딩 사진이 실려 있으며 한국의 다이나믹한 현재를 철저히 취재하겠다는 사진 설명으로 특집이 시작된다.

이 특집은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관광레저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중점은 관광가이드에 두었다. 관광가이드에는 우리나라는 스포츠 천국이며, 서울을 쇼핑천국이라 언급하고 전국 관광 지도를 게재하였다. 또한 “기생관광을 걸어차라”는 주제의 취재 기사를 실었는데 기생관광 보다는 자유연애로 충분히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 여자원팅 요령을 소개하고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의 정력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침입금지”라는 제목하에 여대생 탐방 기사를 여대생의 이름, 얼굴사진은 물론 속옷과 침실사진까지 공개하였다. 그외 한국의 유명 스타를 소개하고 “내가 본 한국”이라는 관광소감을 실고 있다. 여배우 사진은 간지 형태의 화보로 취급하였으며 취재하지 못한 여배우들은 영화의 길은 애정 신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취재협력기관으로 제일대한민국대사관, 문공부, KBS, 부산 MBC TV, 한국영화인 협회 기타 기업체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잡지가 물의를 빚자 어느 출판평론가는 “문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논평했고, 여배우가 벗었다는 데 대해 분개하던 어느 영화 감독은 잡지를 본 후 “악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애교로 봐 달라”고 논평했다. 또한 「헤이본 편치」

의 편집장은 “84년 한국 국가원수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해져 특징으로 기획했다…… 한국 배우들에 대한 소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다.

이상 살펴본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에서 그 “유혹”의 주체는 주로 한국 여성들이며 그 내용은 한국에 가면 충분히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관된다.

이 “유혹”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여행사가 내전 선전문구나 정부의 관광산업 방침과 거의 일치한다는, 또한 동남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일관광산업과 그 양상을 같이 하고 있다.

“기생의 서비스가 만점, 남성의 천국” “한국 의 명물인 강장제 인삼을 먹고 기생파티를 즐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의 중년 이상은 모두 일본말을 하므로 언어장벽은 없습니다”라는 관광여행사의 선전문구나 궁성같은 관광요정, 일본인에게 여자를 알선 해주는 한국관, 국제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찍어낸 ‘서울의 주요부’에 기재되어 있는 요정 위치-이들은 모두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실제로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는 순위는 여자와 토산품이 우선이라고 하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기생파티라고 한다.

기생관광의 배경과 결론

정부는 한일경협이후 대일무역 역조 현상과 차관의 상환 압박 등으로 인해 외화 획득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고 그 수단으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국, 빈약한 자연환경, 숙박시설의 미비 등 관광조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각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했다. 여기서 기생관광이 등장하는데 이는 또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루

트로 보다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하에 정부는 여행사들에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 인원을 배정하는 한편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심지어 학교 부지로 책정된 대지에다 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현재 일류 호텔의 자본 구성비는 일본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자본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배려하에 기생 관광업은 꾸준히 성장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의 대외개방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관광기생’은 독점자본에 의해 생겨나는 자국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출구이며, 더우기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까지 투자함으로써 초과이익을 획득, 제국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퇴폐적인 관광업에 대한 한·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은 “한국으로부터의 유혹”이 제재된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산업사회의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찌든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유혹”적인 향락처가 되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특징이 다루고 있는 관광지대로서의 한국-특히 한국의 여성들은 언제든지 일본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에 오면 얼마든지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는 가사는 이 땅의 전체 여성을 일본 남성의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의 성명을 내기는 고사하고 이 잡지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데 그친 것은 문제를 은폐시키려는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취재협력기관으로 공공단체가 비젠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연히 조장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

12대 총선에 나타난 각 당의 여성정책 및 선거공약

정치참여의 어떠한 통로도 차단당한 채 숨막혀 있던 우리는 요즘 그나마 최소한으로 트인 선거라는 숨구멍에 물려 오랫동안 잊기를 강요당했던 나라의 주인, 주권자 대접에 흥분해 있다.

더우기 우리의 흥분을 돋우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말의 홍수들이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듣고 싶었던 말들이 강도높게 울리면서, 공약이라는 이름하에 대통령 직선제개헌, 지방자치제 실시, 여성차별 개선등의 약속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공약들이 얼마만큼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선거에서 공약의 의미는 그것을 내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싶은가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유권자입장에서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번 12대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여야 가릴것 없이 보수일색이며, 각 계층의 이익이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는 대변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여성정책을 보면 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정책은 병에 대한 처방과 같은 것이다. 정치가들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내는 해결책도 달라진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각 당의 여성정책은 '여성차별개선', '여성 권익의 신장' 등의 문구가 말해주듯,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12대 주요정당 여성공약 비교

이번 12대 선거에서 '모든 여성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 민정당은 11대에서 12개의 공약을 내걸며 '우리 여성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었다.

민정당의 11대에서의 공약

- 1) 정부안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
- 2) 한국여성자원개발원 설치

- 3) 여성행정기구의 승격 및 기능강화
- 4) 여성고용사업장의 복지시설 의무화
- 5)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 6) 근로여성의 권익보장
- 7) 어린이 위탁, 교육, 오락시설 확충
- 8) 모자보건센터 확충
- 9)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
- 10)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
- 11) 여성기능훈련기회 확대
- 12) 여성자생단 체육회

집권당으로서 공약의 실행에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정당의 공약실행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공약중 1항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1983년 12월 8일에 발족, 실제로 첫 회의는 1984년 3월에 열렸다. 공약으로 내건 후 12대 선거가 다가와서야 그나마 한번 회의를 가진 것이다. (이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은 '여성발전 기본계획' '여성백서발간계획' '남녀차별개선지침 작성계획' '85년도 UN주최 세계여성대회참가계획' 등이다)이 회의의 목적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보면 대외적

(12대 주요 정당 여성 공약 비교)

주요	민정당	여당	정한민주당
주요	모든 여성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성권익의 신장	
1	1) 여성 역할의 확대	1) 남녀 임금격차 축소, 기회균등	1)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 여성
2	2) 직장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	2) 중·고령 여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재고조치	2) 신장, 남녀 평등의 원칙 기
3	3) 노동부에 여성직업 훈련원 설치	3) 하여 그 기회향상을 기한다.	3) 여성노동 지원하여 여성의
4	4) 직장에서의 차별 철폐 위한 제도적 보완	4) 민정당 남녀간, 재산·노동차별하는 불합리한 조항, 사	4) 여성노동 지원하여 여성의
5	5) 가정폭력피해도 강화	5) 노동당장의 차별 시정하여 여성	5) 남정당주의 재산권 행위를
6	6) 농촌 여성의 생활향상	6) 농촌 여성신장을 위한 각종 사회운동지원	6) 정당하고 투투간의 운동에
7	7) 교육개혁 심의회 설치로 자녀의 교육의 질 높임.	7) 가족 정책, 노인복지 등에 관한 여성이 참여인정, 문화	7) 안에 대하여 여성의 재산권
		8) 여성, 경제민주화	8) 재산권
		9)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9) 여성, 사회정책, 소비자보호,
		10)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제언	10)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인 과시용인 감이 짙다. 정부차원의 기구들이 얼마만큼 했는가는 의문이다.

지난 4년동안 여성의 전통적인 저임금, 고용 기회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조차 주장되지 않았다. 남녀간의 임금차를 줄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행해지지 않았고, 직장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어떠한 정책도 심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12대에서 민정당이 '육아휴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다수의 여성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물러나기로 관행화되어있는 현 상태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정부 기구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와 더불어 이 기구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약 4, 5, 6항은 근로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약이 지켜졌다면 간호원농성, 버스안내양 자살과 기숙사 집단 탈출, 해고노조간부 단식농성 등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약 7항인, 어린이 위탁시설이나 교육시설 확충은 일하는 기혼여성, 특히 빈민, 노동 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실질적 도움을 못하고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8항의 법률구조사업의 확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여성을 경제적, 법적으로 불리하게 묶어놓고 있는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11대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은 제안국회의원 20명이 되지 못해 상정되지도 못했다. 민정당의 여성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만 하다. 10항의 고급여성인력의 확대는 역시 구호에 그쳤다. 대졸 여성취업난이 여성개발원에서 흡수한 몇명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이와같이 11대에서의 여당의 여성정책이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미소를 보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은 거의 공수포였음을 알 수 있다. 공약 자체의 내용만으로 11대와 12대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12대의 공약이 뒤쳐지는 감이 있다.

기대되는 것은 4항의 직장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UN 차별철폐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됨과 더불어, 강제력을 띤 제도적 조치를 얼마나 취할 수 있는 것인가가 기대된다.

그러면 야당쪽의 여성정책과 공약은 어떠한가? 신한민주당은 정당결성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기는 하나, 공약 내용이 민한당과 별 다른 없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앞으로 가족법 개정에 얼마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인가,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당내의 여성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들이 주목된다.

민한당은 1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여성 문제해결에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가족법개정에 등을 돌렸다는 점,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무감각했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이것은 민한당이 여당속의 우당으로서 야당적 성격이 약한 야당이었던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12대 총선에서 각당이 내건 여성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았다. 두드러지는 것은 아직도 여성들이 정치현상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은 정치가들이 그 지지를 얻기위해 애써야할 대상이라기 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층으로 여겨져 무시되거나, 권력이나 금력에 가장 약한 층으로 부각, 이용당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책답지 못한 정책이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공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5.1.25.「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에서 채택된 「여성유권자선언」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말고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주체적인 정치의식을 갖고서 민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여성위원을 여성의 힘으로 국회에 보내야하며, 여성단체와 정당과의 연계(미국의 N.O.W와 민주당)는 필수적이다.

가족법 개정의 좌절을 딛고

차명희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11 대국회가 작년 12월 18일 123차 정기국회의 폐회와 함께 문을 닫았다. 이로써 지난 여름 그 뜨겁던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은 제안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하지 못한 채로 좌절되고 말았다.

가족법개정은 1981년 민정당 집권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공약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30년동안 끊임없이 거론되어온 여성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 공약은 개혁의 기수로 자처하는 정부·민정당에 의해 사회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의 주도하에 가족법학자와 관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족법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시작하고 개정시안을 작성하였으며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법안의 제출소식은 함구한 채 1983년 5월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할 때, 전문과 30조에 달하는 반대한 이 협약 중 우리나라의 국적법, 성외사법, 가족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조항들을 유보하고 서명하였다. 그리고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가족법 개정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작년 1월 정부는 인구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남아 선호사상을 뿌리뽑기 위해 가족법상 남녀차별 조항을 연내로 철폐하여 가족법개정을 실현시키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122차 정기국회에 정부나 어느 정당에서도 가족법개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국제협약의 가입서명은 국가의 체면유지를 위해 국회에서 유보된 채로 비준된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가족법개정의 공약은 허공에 뜰 수 밖에 없기에 11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유엔협약의 유보없

는 비준을 주장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이 운동은 75개 여성단체가 연합하고 9개 사회단체가 협동회원이 되어 추진해 왔다. 각 단체별로 계몽강연회를 개최하고 가족법개정의 의식화 운동을 벌였으며 전국적인 찬성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각 정당 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가족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편지·엽서보내기, 전화하기 직접방문 등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대변자 국회의원에게 가족법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20일까지 공약한 바 있는 민정당을 비롯 어느한 정당도 가족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여성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0명의 제안의원 서명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7명의 여성의원 중 야당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을 거절한 것이다. 273명 중 끝내 5명(김길준, 황산성, 정남, 고정훈, 김정수)만의 서명을 받는데 그쳤기 때문에 30여년 여성의 염원은 민의의 전당에 들어서보지도 못한 채 표류하게 된 것이다.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들은 가족법 개정을 비롯하여 여성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후보자를 지지하므로써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도록 여성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럽 몇사람보다도 여성유권자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성 스스로 일어 서야 할 때인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한명희 (전 몬트블데이타노조지부장)

* 공순이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11살 때 서울로 와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그러나 사촌오빠가 운영하는 전남 나주의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다시 서울로 온 나는 3년 동안 급사생활로 학비를 벌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일주일만에 급성 간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외사는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 때문에 생긴 병이니 잘 먹고 꼭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헐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과 좁은 판자집에서 온종일 쉬는 것도 고역이었으므로 석달도 채 안되었을 때 몬트블데이타라는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공장! 처음 작업장에 들어가 분홍색 작업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내가 겨우 공순이밖에 될 수 없대니!”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기억장치 생산은 무척 까다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모두들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에도 공장에서 만들던 제품이 천정에 붙어 다닌다고 했다. 이렇게 극도로 긴장된 작업은 나를 미치게 했다. 그 당시 나의 일당은 340원 이었고 한달 내내 일해야 고작 10,200원이었다.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 두어야지!” “한달만 채우고 그만 둘테야!”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시작된 나의 공장생활은 나의 꿈을 송두리째 뭉개고 있었다. 13년전 그때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순이 티를 내지 않기 위해 화장을 했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한달 월급을 몽땅 털어 명동 구두를 신고 다니며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내가 공순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는 철저히 숨겼고 가족들에게조차 공장에서 겪어야 하는 고생스러운 부분은 철저히 숨겼다.

* 노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1977년, 이렇듯 나의 꿈이 무너지는 날이 5년이나 계속되던 중 내 인생에는 다시없는 귀중한 기회가 왔다. 노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노조 대의원이 되었으며, 대의원이 된 지 석달만에 노조 부지부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고 나는 이런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했다. 천대받는 공순이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또 다른 문제를 찾아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게 했다. 나의 걸치레도 차츰 정리되어 갔다. 친구들에게도 “나 사실 그동안 짬뽕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게끔 되었다.

우리 노조는 여성만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노조의 간부들은 제각기 맡은 임무를 놀라울 정도로 척척 잘 해내고 있었다.

* 남성과 여성의 대결

내가 부지부장이 된지 5개월 만인 1977년 10월에 첫번째 사건이 터졌다. 통근버스에서의 일이었다. 한 남자 관리자가 몸이 아파서 잠깐 남자들 좌석에 앉은 한 여성조합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싸가지 없는 제집애들!” 이라는 말을 내뱉은 장본인은 회사로부터는 실임을 얻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조합원들로부터는 노동 강도 강화에 여념이 없는 원성높은 대상이었다.

우리 노조는 우선 본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측에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 게시판에 커다랗게 “공중도덕을 지키자”는 공고를 붙였다. 이 사건은 삼시간에 전 조합원들에게 알려졌고 조합원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여자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오히려 남자들의 동정심을 산 그 관리자는 남자관리자를

과 뭉쳐 버렸다. 그리하여 이는 여성 대 남성의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남자 관리자들은 "여자들이 건방지게 남자들에게 대를 수 있어?"라 했고 "만약 회사가 관계자를 처벌하면 남자들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녀 대결은 평평히 맞섰다.

이렇게 되자 회사측은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는 자세를 갖고 버티었다. 결국 우리 노조는 실력 행사를하기로 결의했다. 2개월 후에 있을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충분히 검토한 전초전으로서 1차적으로는 조합원들의 깃발인 인권을 회복하고 2차적으로는 싸움의 대세를 먼저 잡아 나가자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했다. 모든 조합원의 생산성이 일시에 50%나 내려가자 하루 이를 동안은 목에 힘을 주고 공갈과 협박을 하던 회사측이 3일째 되던 날 그 관리자를 처벌하겠다고 굴복해 했다.

우리는 단체 행동을 처음 했기에 조바심과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정부기관의 압력도 강했지만,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뭉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조합원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회복해 낸 것이다. 우리는 모두 끌어안고 기뻐하며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남자 관리자들이 우리 여성 조합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반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 78 년도의 임금인상

그 해 나로서는 첫 번째 임금인상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회사에 대한 정보에 어두웠던 우리 간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금인상 근거를 찾기 위해 정보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설문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작업 때문에 생긴 질병과 부양가족 평균치를 뽑았고 영등포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나가 실제 여성 근로자 한 사람의 한 달 식비와 옷값 등을 알아내고 복덕방까지 돌아다니며 방세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를 산출했다. 그리고 퇴근 후 생산부장실에 몰래 들어가 우리들의 생산 실적을 알아냈으며 미국 본사가 발행한 사보를 입수, 영문을 번역하여 본사의 발전과정을 알아냈다. 또한 회사 관리자를 쫓아내어 한국 공장의 수출 실적과 순이익, 과실송금도

알아내고 무역협회 등으로 쫓아 다니며 회사의 경영 전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한 미국 본사와 한국 공장의 실태를 낱알이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들의 생산실적과 회사의 수표실적 및 순이익의 수치는 정비례하여 올라갔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간 그래프와는 반대로 우리들의 임금은 형편없었다.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노사협의회의 석상에 들어간 우리 간부들은 당당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었다.

회사 간부들은 놀랐고 한 간부는 우리를 0.01%도 안 들린 수치를 뽑아 낸 007부대라고 말하면서 궁색한 변명에 급급했다. 이들은 "미국 회사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생산성은 우수하다. 그러나 동종업체와 비슷한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렇게 석달 동안이나 실경이를 벌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인상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2개월이나 넘겼을 때였다. 미국 본사는 우리가 보낸 편지에 대해 "우리는 지불능력이 풍부하다.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고 싶다. 그러나 당신네 나라법이 허용치 않으므로 안 되겠다"라는 답장을 보내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

노동부와 경찰의 압력을 받으면서 15일 동안이나 태업이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끈질기게 참으며 노동조합 속에서 하나로 뭉쳐갔다. 결국 노동부의 중재 결정으로 우리들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결정이 났을 뿐 죽고 싶도록 분하고 억울해서 모두들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임금인상을 위해 노조간부들은 거의 석달 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 가면서 밤을 하얗게 세웠고 수없이 거들 노조회의를 하고는 노조 사무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면서 야간 근무자들을 교육하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에 흐르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심한 허탈감을 맛보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한 값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 임금인상 1%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알았고 주변에서는 잘 해냈다고 격려를 했다. 그러나 이때의 울분은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아, 이 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즐기차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조합원이 살린 노동조합

'78년 2월 우리가 임금인상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회사의 슬체에 말려든 3명이 중심이 되어 노조 반대 조직을 착착 해가고 있었다.

회사의 고위 간부로부터 은밀한 정보를 전해 들은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반대 조직의 대외원 숫자가 우리측보다 3명이나 더 많이 넘어간 다음이었다. 이 때는 임금 인상요구가 아직 끝나지 않고 막바지에 달해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임금 문제에 온 힘을 모은 후에 조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리하여 1%의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의 현장은 폭발이 되어 버렸다. 반대 조직원들은 악성 유언비어를 만들어 선전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격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쉬는 시간만 되면 반대 조합원 한 사람씩을 조합원들 2~30여명이 가운데 세워 놓고 현장 재판을 해댔다.

“왜 너는 노조언니들이 싫어나?” “흥! 나는 그 언니들이 술 잘 마셔서 싫고 담배 피워서 싫어!” 라고 소리쳤다. 이에 “아니 술, 담배가 무슨 상관이니? 일단 열심히 하면 됐지, 또 ‘장’인데 술, 담배 좀 하면 어때 노조 활동에 잘못이 있으면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잖아!” “야! 그리고 니가 그 언니를 술 담배하는 것 직접 봤어?” “뻔히 모함하는 말에 넘어가서 노조를 잘못되게 하구 있어!” 하는 등의 논란이 거듭됐고 조합원들의 열화 같은 지지가 더욱 강화되자 반대 조직원들은 고립되면서 그들끼리 뿔뿔 뿔쳐갔다. 반대 조직의 목적은 노조 임원을 불신임시키는 것이었으나 대의원의 2/3를 가지지는 못했다. 또한 우리 역시 대의원 중 과반수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2번이나 대의원대회를 치르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인 용직임으로 조직 문제를 극복해 냈다. 이과정에서 너무 힘들 때는 아예 사표를 던지기도 싶었다. 그러나 회사측에 매수된 반대 조직에 노조를 넣기는 것은 민주 노조의 포기를 의미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며 그러면서 나는 조합원들이나 간부들과 깊은 동지애를 나누는 것이 이 지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 80 •

우리는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교육으로 의식화시켜 나갔으며 개개인에 열매이기 보다는 함께 사는 방향을 추구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인간성회복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까지 내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처음 1년간 겪었던 사전 중 3가지 사례만 언급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조금은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 42시간 근무로 1년 365일 중 124일을 쉴 수 있게 했고,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는 약 30%의 임금을 더 받았다. 이렇게 받은 임금이 14년 근무체인 81년도에 14만 원이었다.

한때 이 14만 원이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여성 중 가장 많은 임금이라는 데에서 우리나라 근로 여성과 임금 형편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근로자의 임금 실정은 이중으로 뼈아픈 구조에 처해있다. 기업주로부터 정당한 댓가를 못 받는 데다 남성의 1/2정도의 수준이니까 말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은 흔히 "7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성 중심이었다"고 한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이 바로 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다. 또한 중수지리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데 그래서였을까? 아뭏든 지난 날의 경험을 거울삼아 끊임없이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노동인권, 여성인권 회복에 내 젊음을 바치고자 한다. 그 날이 오면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모두 맞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I. 여성문화큰잔치를 평가한다

여성문화큰잔치는 '84년 10월 27~28일 양일간 4회의 공연내내 흥사단 강당을 가득 메운 열기와 함께 많은 성과와 함께 시사점 또한 던져 주었다.

연이어 부산 카톨릭문화센터에서의 3회 공연은 여성운동에 대한 지역에서의 원망(願望) 정도와 기반조성을 충분히 감지하게 해주었다.

연 3000여명이 동원된 이 행사는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도 주체적인 대중집회의 성격을 띠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것이 문화매체가 갖는 특수한 영향력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할지라도 2000여명(참가자중 남자를 30%로 상정한다 하더라도)의 여성이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중여성운동의 첫 시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조직을 다지기에 바빴던, 그리고 대중에 대한 관념적 접근만이 이루어졌던 상황하에서 대외적인 행사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성공하였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조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대중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실천적 자각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1. 행사진행과 내용에 대한 분석

먼저 이번 행사는 그간 끊임없이 논의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던 "여성문화"를 기치로 내건 행사이니만큼, 여성문화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정립되어야 하는가가 행사 전반을 통해서 일관성있게 밝혀져야 했다. 우선 여성문화의

방향성 문제가 집약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주제강연이었는데, 거기서는 "여성해방운동은 다른 어떤 사회운동보다도 문화운동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다음, 민중문화운동에서 시사점을 찾으면서,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는 집단이 문화의 창조자이며 향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 즉 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론으로 "건강한 여성문화의 창조는 무엇보다도 일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며, "새로운 여성문화는 일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의 과정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적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의 주제를 "일하는 여성"으로 택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통속적인 문화에 대한 관념을 타기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공연장 밖의 사진전이나, 말놀이마당·영화마당·사예극마당·소설굿마당 모두가 기본적으로 여성문화에 대한 위와 같은 개념규정위에서 구성되고 진행된 것이지만 문제는 첫째,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있게 짜여지고 전달되었으며 둘째, 구체적 공연내용 속에서 여성문화 개념의 추상성이 어느만큼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접전달의 효과를 노린 주제강연은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강연형식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돋보였으나, 강연이라는 것이 관객의 주의력이 집중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점, 매체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산만한 분위기, 일반대중이 알
아듣기 어려운 고도로 지적인 언어사용(특히 서
론·결론부분)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더우기 관심
이 집중된 슬라이드에서 극복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강연의 결론부분이 산만하게 처리된 점
이 아쉬웠으며, 새로운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방
향제시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딸놀이마당과 사례극마당도 자체층 여성들이 당
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 문제점들을 잘 지적했으
나 그 대안점이 부족하였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이 부족하여 고조되어 가던 호흡이 분출점을 찾
지 못한 채 마당마다 끊기는 느낌을 주었다. 바람
직한 것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그를 통
한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조라는 목표가 해학과
웃음 위에 뚜렷이 부각되어야 하고, 그 고양된
분위기를 실천적 결단으로 마감할 수 있는 구성
이어야 할텐데, 내용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기획의
도가 잘 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딸놀이마당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뒤부
분에 해당하는 '성의 상품화'라는 주제는 정치적
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논리는 사상된 채 현상적인 채곡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머무름으로써 감동의 폭을
축소시켰으며 여성문제의 여러 측면 중 성의 상품
화 문제만이 과도하게 강조된 듯한 인상을 주는
역효과도 있었다. 또한 대사의 흥미-특히 성과
관련된-는 공연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에 대한 대중
(특히 남성)의 저속한 호기심을 야기시킴으로써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었다.

딸놀이마당에 이어진 소형영화마당은 차분한 내
용전개는 좋았으나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효과
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전
개되었다고 여겨진다.

교사사례극은 현장고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내용도 꽤 재미있었지만, 대중가요 개사곡만으
로 처리한 것은 감동적이라기 보다는 재미에 가
까운 것이고 긴장도를 줄여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안내양사례극은 이번 공연의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연기자 관람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
겨 주었다.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그려내는 차원을 넘어서, 극복을 향한 몸부림과
동료애를 담은 것이 감동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되
며, 이 부분은 전공연을 통해 가장 발전적인 모습
을 보여 준 부분이었다.

소슬굿마당은 '소슬굿'의 형식을 빌어 어둠의
역사로서의 여성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결단과 기원을 응축시킨 마당으로, 주관적
·개인적 한이 집단성을 획득했을 때 발휘되는 자
각의 힘과 나와 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펼쳐
나갈 소망스런 미래를 예시해 주는 결론적의 마
당이었다. 공연을 본 사람은 누구나 작두놀이
의 충격과, 해방의 희열에 넘친 막판의 군무의 감동
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소슬굿마당에 내포
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관람자가 얼마나 되었
을지는 의문이다. 미리 램프렛을 읽어두지 않은
사람은, 비록 사회자가 코멘트를 했다고 하나, 앞
의 마당들과 소슬굿을 연결지어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작과 극복, 해방
이라는 메시지는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공연
의 결론부분으로서 지녀야 할 대중적 설득력이 부
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국 주제강연에서 제기한, 일하는 여성이 주체
가 되어 실천을 통한 여성문제의 극복과 새로운 여성
문화의 창조라는 방향성은 상징적·추상적 차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첫 "여성문
화큰잔치"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행사의 대상선정과 그에 따른 공연내

용 구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성문화큰잔치"가 어느 계층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일견 명확하지 않다. 즉 다양한 내용과 각각 감각이 다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하게 말하면 일치하는 것은 여성문제해결, 새로운 여성문화 창조라는 방향성 정도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이다. 이것은 "여성문화큰잔치"가 대상을 다양하게 겨냥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문화큰잔치"가 지향하는 새로운 여성문화는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하는 삶의 현장에 뿌리박은 문화이며, "일하는 여성"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안내양 등 근로여성문제, 매춘문제 등을 중심 주제로 다룬 것이 그러한 지향성의 뚜렷한 표현이다. 따라서 행사의 대상설정에서 있어서도 지식인이나 중산층여성 못지않게 기층여성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기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층여성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행사의 언어는 분명 지식인의 언어였으며, 강연 및 공연의 수준은 기층여성보다는 중산층 여성에 적합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실제의 관객들도 근로여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식인·학생·중산층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첫째 "여성문화큰잔치"는 기층여성이 주제가 되는 여성문화를 지향하는 중산층·지식인여성들의 잔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층여성, 일하는 여성의 절실한 현장감과 실천적 의지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행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중산층여성의 허위외식을 깨고 실상을 폭로하는 데 집중되었고 그 면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2. 평가와 한계

여성문화큰잔치는 성과 계급이라는 중층적 모순구조의 여성문제를 문화매체의 선득구조를 통하여 여성대중에게 전달하였다.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여성평우회가 기초한 운동론에 대한 검

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자체만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와 한계를 동시에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 고립, 분산된 여성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일정하게 수렴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여성대중은 고립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립분산성을 극복해야 할 여성운동 또한 고립·분산되어 있다. 여성단체운동은 능력있는 중산층여성의 개인적 자각에 의존하고 그 활동 또한 시혜적 차원의 봉사(주체가 소외됨)로 대부분 머물러 사회적 자각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층여성운동은 생존권문제의 해결에 함몰되어 있어 여권적 자각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성운동과 여성대중의 존재양태가 떠는 고립·분산성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심화되고 여권적·사회적 자각체로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문화큰잔치는 여성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일정하게 수렴할 수 있던 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감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데 또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둘째로, 대중성의 확보와 여성들의 유대감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이 행사의 주제 및 이슈가 꽤 다양하고 범계층적이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다양한 문제의식은 일정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전 계층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대중이 피해의식을 벗어나 여성이라는 '피억압집단'으로서의 공동체적 유대감이 집단적 의식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반면 앞서 내용분석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모호한 계층성, 애매한 대중성은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과 함께 또한 기층여성의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

으로써 문제의식에 있어서 산만함을 보였다.

셋째로, 여성운동에 있어서 문화운동의 독자적 영역이 구축·확보되는 계기로 되었다. 젊은 여성문화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여성운동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여성운동의 전파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투쟁, 교육운동, 생존권투쟁 등의 영역에 비해 문화운동 영역이 초기에 확장됨으로써 여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오인할 여지가 생기게 된 점 또한 한계로서 지적되어야 하겠다.

이처럼 평가에 있어서 양면성을 띠는 여성문화큰잔치는 그만큼 현여성운동의 단계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특정의 역사적 국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과의 괴리에서 나타나

는 것이라 하겠다.

여타 사회운동 (특히 '83 년 이후 등장한 사회운동체)의 치열하고 활발한 운동전개에 의해서 여성운동의 공간 또한 크게 확보된 측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대를 통한 운동체의 공생공존의 운동논리가 관철되고 있지 않는 현실 또한 그것은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큰잔치는 대중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행사 자체로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계몽적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조직화까지 수반되는 의식화운동과 결합될 때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성평우회가 대중여성운동체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 각자의 많은 시간과 직업적인 헌신·정열을 요구하지만 올바른 이념정립과 실천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된다 하겠다.

II. 대본

딸놀이 마당

(농촌여성거리)

(배우들, '비타령'을 부르며 판에 등장한다.)



노래가 끝나면 모두 한쪽으로 모이고 시어머니가 나와서 며느리에게 일을 시킨다.

시어머니: 아이고 마. 해가 중천에 났다. 아이가. 똥발에 김매려 안가나.

(잡색들, 김매는 동작으로 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시어머니: 뭐하노, 시에미 굶겨 죽일려고 작정을 했나.

(잡색들,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는다)

시어머니: 송충 가져 온나.

(잡색들, 정신없이 송충을 들고 온다)

시어머니: 아야, 새참 내온나.

(잡색들, 새참 차리는데 시어머니, 또 성화를 부린다)

시어머니: 아이고마, 얼라 자지려진다. 뭐하노 퍼뜩 젖 안물리고.

(잡색들,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시어머니: 아이고, 허리쭈서 못 살겠네. 애야, 군불 쫓 지피거래이.

(잡색들, 군불을 지피다 말고 힘든 일과에 지쳐 꾸벅 꾸벅 준다.)

시어머니, 잡색들이 앉아서 졸고 있는 사이를 이리 저리 다니다가 혀를 찬다

시어머니: 쫄쫄, 그렇게 코를 끌고 졸고 있으면 우짜노.

(잡색들, 잠을 쫓으려하나 여전히 졸고 있다)

시어머니: 우야돈둥, 합궁을 해가지고 대를 이을 아들하나 봐야 되지 않겠나? 뭐하노? 퍼뜩 가라는데, 퍼뜩 가라카이.

(잡색들,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에 놀라 켜다. 이때 장구 '딱'을 쳐준다)

그림②



모두 일어나 삼채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판을 물다가 할머니를 중심으로 달팽이진을 맡아 삼신할머니께 비나리를 한다.

할머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벌써로 팔만 다섯 아입니꺼? 제사지낼 아들하나 없읍니데이. 문중에 대가 끊집니데이. 아들 하나 점지해 주이소. 지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이소.

(할머니가 비는 동안 잡색들도 달팽이진의 중심을 향해 빈다. 일단 할머니가 말을 맺으면 모두 함께 중심을 향해 절을 두번하고 나서 갑자기 배를 잡고 고꾸라진다. 삼채 입장단에 맞춰)

잡색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장 단: (삼채) 덩따쿵따 덩따쿵따

잡색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장 다: (삼채) 덩따 쿵따 덩따 쿵따.

※1.비타령

윳소리: 아아아 아아아아

선소리: •어디를 갔다가 인제오나/ 옥중 춘향이 임 만난듯/ 칠년대한애 단비로세/ 빗일이 훨훨 영화되니/ 어찌 아니 반질소나/ 비를 맞아도 나는 좋고/ 반아니 먹어도 배가 불려/ 김제 만경 너른 들판애/ 팔아리 땀으로 허여주소/ 거드렁거리며 놀아 보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허 좋네/얼씨구나 절씨구.

잡색들 : (함께) 응애, 응애.

(잡색중에 한명은 아들을 낳아서 뿔 듯 좋아하며 일어나서 판을 돌며 춤을 춘다. 나머지 잡색들은 딸을 낳아서 땅을 치며 대성 통곡을 한다)

잡색 1 : 아들이다! / 얼씨구 좋구나. 만세.....

잡색들 : 아이고, 딸, 딸, 또 딸 / 아이고 내 딸자야.

(잡색들,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와서 며느리를 구박한다)

시어머니 : 야야. 이 문둥이 가시나야. 남들 다 쑥쑥 뿔아내는 아들 하나 못놓고 뭐했노? (씨근덕거리며) 딸만 낳은 주제에 산간을 사흘씩이나 할라카나. 아이고 마, 끝도 보기 싫다. 색 나가거래이. 뭐하노? 뭐하고 있노? 색 나가라는데

(장구 '딱' 소리나면 앉아서 울던 잡색들 일어나 아기를 품에 안고 삼채장단에 맞춰 판을 돈다. 적당히 돌다가 한쪽에서 문지기를 만들어 간다. 문지기가 다 만들어지면, 아들을 안은 시어머니가 문지기를 통과하며 선소리를 하고, 잡색들 함께 윙소리를 받는다)

시어머니 : 갓마흔에 아들 낳아

잡 색 : 갓마흔에 아들 낳아

시어머니 : 어서어서 키워내어

잡 색 : 어서 어서 키워내어

시어머니 : 판·점사를 만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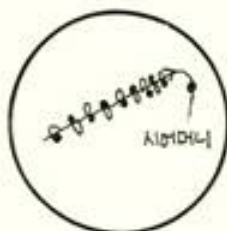
잡 색 : 판·점사를 만들어서

시어머니 : 농부신세 면해보세

잡 색 : 농부신세 면해보세.

(장구 '딱' 을 치면 잡색들 문지기 만든 것을 끌어서 사이 사이 엇갈린 방향으로 허리 굽히고 었드린다. 시어머니가 아들로 하여금 뽕다리를 밟는 형식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고 잡색들 '뽕당에 타명'을 윙소리만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그림④



시어머니 : 야 이 가시나야.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인데 우짜짓노. 우야돈동 니 동생 공부시켜 갖고 판점사 땡글어서 농부신세 면해보자꼬마.

(장구 '딱' 치면 잡색들 일어나 한 방향으로 서서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서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노래를 가사 바꾸어 부르며 판을 돈다. (2번) 노래가 끝나면 '강강 수월래'의 '청청 청어 엮자' '위도군산 청어엮자'를 '공공 공장 가자, 야간 특근 잔업하러'로 바꾸어서 부르며 청어 엮기를 한다. 청어 엮기가 다되면 그중 한사람이 나와서 작업반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들은 일부는 앉고 일부는 서서 줄고 있는 대형을 만든다)



(근로여성 거리)

작업반장 : 우리는 대한의 노동자! 노동자 이끄는 애국자!

(작업반장, 판을 돌아다니며 관객을 향해 선서를 한다)

작업반장 : 새마을 산업역군 선서! 하나, 우리는 산업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 근대화에 앞장선다. 둘,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 한몸 희생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열여섯 시간씩 한달에 이십오일을, 그리고 나머지 5일은 특근! 특근으로 채워서 몸뚱이가 부서져라 일만 한다. 셋, 모든 작업현장에서 일체의 불만없이 회사에 충성한다. 그리하여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깊이 깊이 깨닫는다. 넷, 작업현

※ 2. 가요 가요 나는 가요!

·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돈벌러가요!

부모 형제 멀리떠나 공장에 가요 (2번 반복함)

장에서 노사간의 마찰은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 대화, 타협, 대화, 타협,
(새삼 깨달은 뜻이) 민주 / 민주적으
로 해결한다. 다섯, 모든 여성 근로자
들은 성적인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남성 근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어 생산
성 향상에 이바지 한다. 박수.

(작업반장, 관객들에게 박수치라고 강요하다가
노동자들이 박수는 안치고 출고 있는 모습을 보
고는 흥분해서 노동자들에게 달려 간다)

작업반장 : 아니? 이것들이 준기가 빠졌잖아. 뿔
들하는 거야? 야, 여기가 너희들 데
려다가 공짜로 밥먹여 주고 잠재워 줄려
고 차려는 회사잖아? 빨랑빨랑 일
해!

(작업반장의 고향에 놀란 노동자들 판에 흠어져
서 제자기 근로현장에서의 일출을 주고 있다. 작
업반장, 노동자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일하는 모
습을 지켜보다가 혼자 흥분해서)



작업반장 : 뭐? 노동자의 인권? 인권같은 소리
하네. 야, 돈버는데 인권이 어디 있고
인정이 어디 있고 양심이 어디 있냐?

(작업반장, 혼자서 씨근거리다가 갑자기 배를 움
켜쥐면서)

작업반장 : 뭐? 배가 아프다고? 생리휴가를 달
라고? 웃기시네. 야, 생리 안하는 여
자 봤어? 아픈 배 움켜쥐고 죽어라고 일
해서 이 만큼이나 사는 거고 국가도 톨본
해진거야. 알아?

(작업반장, 자기말에 혼자 도취되어 고개를 끄
덕거리다가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듯 성화를 낸다. 판을 돌아다니며)

작업반장 : 이따위로 일해서 어떻게 작업량 채우나?
대수 더 뽑아! 불쌍내지 말고 정신
차려!

(출고 있는 노동자를 어이없는 듯 쳐다보다가
발길질을 하며)

작업반장 : 이게 진짜

(바로 채인 노동자가 쓰러져 울고, 옆에 있던
노동자가 대든다.)

노동자 1 : 왜 때려요, 아저씨, 일단 하면 될 거 아니
예요.

(작업반장, 어이없다는 듯, 관객들에게)

작업반장 : 허, 저 저년이 무식해서 저래요. 못배우
고 저학력이거든요.

(다시 노동자 1을 보며)

작업반장 : 야, 이년아, 좀 배워라. 너 같이 대드는
년들 때문에 전체 노동자상이 흐려지는
거야. 뭐 불순분자가 따로 있는 줄 알
아. 다 너같은 년을 두고 불순분자라고
하는거야. 야, 배워서 남주냐? 쫓쫓이
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맛사지법도 배
우고, 예의범절이란 것도 좀 배워라.
응?

(돌아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예뻐장한 여
자 노동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등을 톡치며)

작업반장 : (근엄하게) 야, 너 이리 따라와 봐, 빨
리 따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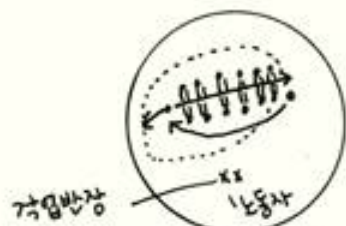
(노동자를 앞에 데려다 세워놓고 찬찬히 훑어
본다)

작업반장 : 야, 피곤하지? (입맛을 다시며), 너
참 잘빠졌다. 내말 잘들으면 3교대 야
근조에서 빼줄게.

(작업반장, 땀고 있는 노동자를 던친다)

노동자 : 왜 이러세요. 어머니!

(노동자의 절규와 동시에 판은 잠시 동작 정지
상태로 있고 장구 장단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삼
채춤을 추며 판을 돈다. 다시 문지기를 만들고
시어머니가 문지기를 통과하며 선소리를 하고 잡
색들, 합계 뿔소리를 받는다)



시어머니 : 잣마흔에 아들 낳아

잡 색 : " "

시어머니 : 어서 어서 키워내어

잡 색 : " "

시어머니 : 관점사를 만들어서

잡 색 : " "

시어머니 : 부귀영화 누리보세

잡 색 : " "

(장구 '딱'을 칩과 동시에 앞에서 처럼 뚫다리 밟기 형태를 만들어 '중당에 타령' 뽀소리를 부르고 시어머니는 아들로 하여금 뚫다리 밟기를 시킨다)

시어머니 : 야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짜노. 우야돈둥 니 동생 공부시켜 갖고 관·점사를 만들어서 영화부귀 한번 누리 보자프마.

(매춘 여성 거리)

(장구 '딱' 치면 잡색들 일어나 한 방향으로 서서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서 '가요 가요 나는 가요'를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며 돈다. 노래가 끝나면 판의 한쪽에서 반원을 그리고 서서 모두 '캉캉'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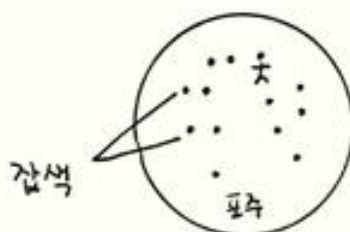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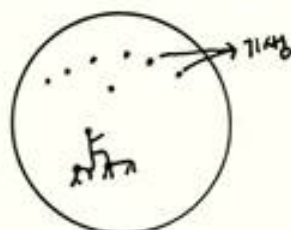


※3. 가요 가요 나는 가요?

·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몸 팔러가요 / 588로 양동으로 몸 팔러가요. /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몸 팔러가요 / 쪽발이 양키에게 몸 팔러가요.

잡 색 : (춤추며) 하나, 둘, 셋, 넷, 원, 두, 쓰라 포.

(춤이 끝나면 포주와 포주를 등으로 받치는 잡색이 앞으로 나온다. 나머지 잡색들은 그중 한명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 교육을 받는다. 포주가 대사하는 동안 각자의 위치로 가서 일부는 슬파르고, 일부는 고스름을 치고, 일부는 화장을 하고, 일부는 잡담을 한다. 한명은 일어서서 스트립쇼를 연습하고, 한명은 몸져 누워 있는 상태이다. 포주는 잡색 등에 발을 올리고 서있고 옆에서는 포주의 발을 맞사지 한다)



포 주 : 자원원료가 빈약한 우리나라 같은 대선 수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밀천 안들이고 몸뚱이 하나로만 버는 정직한 외화회득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금번, (포주, 판을 돌아다니며 관객을 향해)

포 주 : 우리 정부에서는 부강 한국을 위해서 여성 인력 20만을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한X국 만세 / 애국 다져 만세 / (목소리를 낮추어) 니뿐이노, 노동자노, 청소부노 여러분, 논개정신, 정신대의 전통을 이

어발은 한국의 후예들이 환락의 고장, 서울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꿈과 향락과 섹스를 배부르게 즐겨주시니까요? (위협적인 목소리로) 싸모님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요? 이 사회 남자를 물건이 썩어! 몰래주고 물건팔아 좋은 일하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 일부일체제 사회의 고매한 하수구, 송고한 시궁창 덕분에 여러분이 미제물건 쓰고 애인 안 잃고 사는 것 아니냐?

(포주, 기생잡객들 사이를 돌아 다니다가 스트립쇼를 연습하는 기생에게 가서)

포 주: 손님을 고도의 기술로 녹여서 300불 킬 목표 달성하도록!

(어깨를 탁 치면, 기생잡객, '열려 말라는' 물건을 보인다. 포주 또 다른 잡객에게)

포 주: 야, 중 있어?

기생 1: 네, 있어요.

포 주: 우리에게는 학벌, 고상한 몸, 그리고 종이 생명이야. (회 돌아서서) 아! 인삼, 산삼, 고삼, 중삼, 아다라시, 유부녀, 입맛에 맞춰 드렸읍니다.

(포주, 판을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몸져 누워있는 기생을 본다)

포 주: 야, 이년아, 손님 안받아?

기생 2: 아이,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울먹인다)

포 주: 안사장이 아까부터 기다리잖아. 어디 한두번 해보던 것이냐? 어서 일어나 손님 받아.

기생 2: 손님 받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내몸이 이렇게 아픈데.....

포 주: (떡살을 잡고) 야! 내가 널 얼마나 주고 사왔는데 쌍! (밟는다)

기생 2: (도망치려하다 툭 쓰러지며) 어머니! (기생의 절규와 동시에 판은 잠시 동작 정지 상태가 된다. 장구 장단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삼채

춤을 추며 판을 돈다. 다시 문지기를 만들고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된 잡객 한명을 데리고 문지기를 통과하며 선소리를 하고 잡객들 함께 뿔소리를 받는다)



시어머니: 갓마흔에 아들 낳아

잡 객: " "

시어머니: 어서 어서 키워내어

잡 객: " "

시어머니: 판점사를 만들어서

잡 객: " "

시어머니: 부귀영화 누리보세

잡 객: " "

(장구 '딱'을 치고 동시에 잡객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아들은 잡객들 등을 밟으며 나온다. 잡객들 '비타령'을 불러주고 '놋다리밟기'가 끝나면 한명이 나와서 아들 머리에 어사화를 씌워준다)

어머니: 아이고, 마. 내 새끼 고시파스 했다 아이가.

(어머니와 '아들, 신나게 춤추며 판을 돈다)

어머니: 인자는 누구집 딸이 며느리가 될지 몰라도 부귀영화 누리는 건 시간문제 아이가.

(기생 절고 거리)

(이때, 잡객 한명이 일어나서 주마담이 된다)



뚜마담 : 휘이, 개천에서 용 났다네 (소리지른다)
아, 슈퍼프리미엄이라네 (한숨 돌리고)
중매하면 마담, 마담하면 뚜, 뚜하면 바
로 저을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 보시라니
잔요. 자! 그럼, 첫번째 상품.

(뚜마담, 기생 점고하듯 이름을 한명씩 부른다)

뚜마담 : 0001- /

(얼드려 있던 잡색 한명이 일어나 판사가 된 아
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며 돈세는 동작을 한다)

뚜마담 : 미국 모 대학 경영학과를 배위한 국제적
제주 /

(아들, 훑어보다가 싫은 표정을 짓는다. 잡색
'흥' 하며 물러간다)

뚜마담 : 그러면 다음상품, XX이- /

(잡색 한명이 일어나서 아들을 향해 색시한 포
즈를 취한다)

뚜마담 : 미모의 겨울여자, 남근 숭배사상 끝내줘.

(아들 훑어보다가 싫다는 몸짓을 한다. 잡색,
뒤로 물러나 앉는다)

뚜마담 : 세번째 상품, XX이- /

(잡색 한명이 일어나 거만하고 당당하게 아들을
향해 포즈를 잡는다)

뚜마담 : 모장관의 숨겨논 외동딸, 영주권도 획득하
고, 이혼 경력은 법적으로만 전혀 없음.

(아들, 훑어보다가 못마땅하다는 몸짓을 한다.
잡색 '에이 주제에' 하며 물러간다)

뚜마담 : 이번엔 마지막 상품, 이 상품이 당첨되면
스텔라- 99 평짜리 빌라-를 코미션으로
줘야 해

(이때, 잡색 중 한명이 일어나 앞으로 나오며 당
선된 포즈를 취한다)

뚜마담 : 애 애, 너는 아니야.

(잡색, 몹시 창피해 하며 '아유 쪽팔려' 하면
서 뛰어 들어가 숨는다)

뚜마담 : 으음, 투 스타즈 도터! 지참금은 백지수
표! XX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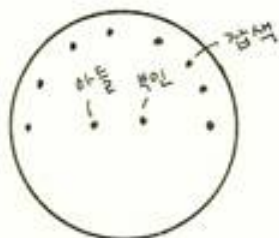
(잡색 한명이 일어나며 아들을 향해 우아하게 웃
는다. 아들, 몹시 만족한 표정으로 훑어보

가 뚜마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뚜마담과 잡
색,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잡 색 : 당첨, 당첨, 엄마, 나 당첨먹었어.

(중산층여성 거리)

(아들, 잡색, 뚜마담, 장단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나머지 잡색들은 판 가장자리로 물러나 앉
아서 박수를 쳐준다. 뚜마담도 물어가 앉고 아들
과 당첨된 잡색, 마주서서 '해방춤'을 한 귀절
춘다음, 판사가 중앙에 천정을 보고 눕는다. 잡
색, 판사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춤을 춘다)



판사부인 : (동작을 멈추고) 어보, 우리가 한몸이
라는 건 이제 증명됐지요? 그러니, 우
리 재산, 공동명의로 합시다.

(판사부인, 판사가 누웠던 반대 방향으로 배를
짚고 눕고, 판사, 일어서서 부인의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춰서)

판 사 :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인데 누구 이
몸으로 하면 어때?

부 인 : (고개를 들고) 당신은 생명보험도 들지
않았잖수? 그러다가 만약 당신이 골짜닥
하기라도 하면 그 엄청난 상속세를 어떻게
물어요? 그러니 우리 재산, 공동명의로
합시다.

판 사 : 그러면 (천천히 크게 뛰면서) 비싼거, 비
싼거 비싼거 비싼거는 다야 내이름으로 하
구. (빨리 작게 뛰면서) 싼거 싼거 싼거
싼것(잠시)도 다 내이름으로 하지.

부 인 : 아이, 공동명의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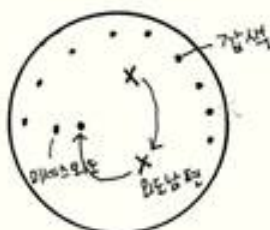
판 사 : 그럼, 화끈한 고성능 내물전 당신 명의로
하구라.

(관사, 엉덩이를 크게 두어번 흔들며 말하고는 부인 위로엎어진다. 이때 잡색중에 한명이 뛰어 나오며)

(외도남편 거리)

미세스 외도: 미세스 외도예요, 못살겠어요, 이혼 시켜주세요, 관사……님……(관사부부를 보더니 눈을 가리며 돌아서서)에그머니나, 못볼 걸 봤네.

(관사부부, 후다닥 일어나 들어가고 미세스 외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앉는다. 잡색 한명이 일어나 두리번거리며 나온다)



외도남편: (관객에게) 내 마누라 못 봤어요? 혹시 내 마누라 못봤어요?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다가 미세스 외도를 발견하고는 달려가 손을 들어 위협하며)

외도남편: 아니, 이년아! 남자가 바람 좀 뺐기로 평알거리기는, 확! 야, 남자의 때떡이 뭐냐? 박력과 정력, 이거 아니겠어? 이거 때면 시체라구, 그리고 내가 외도를 하되 침을 두었나, 살림을 차렸나, 그까짓 것 탐지도 않는 것 좀 즐기겠다는 데……(관객을 향해 자랑스럽게) 외도를 하자면 적어도 나정도는 되야겠지. 으음, 월요일! 원래 노는 날입니다. 명동, 종로, 광화문, 신사동, 야! 아가씨들 참 예뻐하네요. (관객 한명을 가리키며) 이따 끝나고 나 꼭 봐요. 화요일! 화끈하게 노는 날입니다. 뽕싸롱 김마담, 아, 테크니크 끝내줘. 수요일! 수요일은 수수하게 쪽발이 현지처 아

르바이트 하는데 가서 (이때, 옆에 있던 잡색이 외도남편 다리를 얼싸 안는다) 성급하진 (뱀어내며), 근데 이런 여자일수록 지독해서 아침이 되면 내가 빙빙돌아요. (머리를 빙빙 돌린다) 목요일! 목이 터져라 노는 날입니다. 어이, 미스타 박 (관객 한명을 가리키며) 총각은 거기라야 는다구. 이때월에 창순이를 말아야, 순양키하고만 붙어 먹어가지고 앞뒤 체위가 아주 다양해요. 금요일! 금방하고 또 하는 날이에요. 미스김과 쇼트타임, 미스최와 롱타임, 토요일! 내가 아무리 김외도라 하지만 토요일쯤 되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저 허리에 손만 가면 오줌이 짙-짙-. 일요일! 일찍하고 한번 머하는 날입니다. 사우나탕에 가서 목욕 싹하고 때밀이 아가씨와 두어판 붙고 나면 피곤이 싹 풀리는 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노래, '가슴이 펑하네요 정말로'를 부르며 춤을 춘다)

(폭력 남편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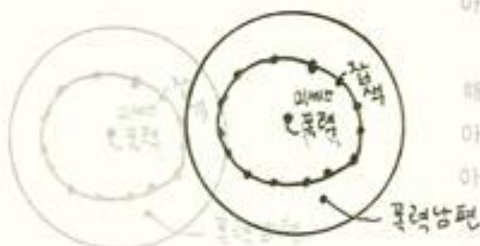
미세스 폭력: 밤낮없이 두들겨 패서 못살겠어요.

미세스 폭력이예요.

(외도 남편이 폭력 남편이 되어 미세스 폭력을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잡색들은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휘잡기 놀이를 한다. 미세스 폭력, 잡색들의 도움으로 얼마간 피해 다니다가 폭력 남편에게 잡힌다. 잡색들은 뒤로 물러가 가장자리에 앉고 폭력남편, 부인을 사정없이 때리고 찬다. 매맞던 부인 잡색들의 응원으로 남편을 물고 꼬집고 잡아당기며 대든다. 그러나 역부족인 미세스 폭력, 심하게 걸어차이며 바닥에 쓰러져 버린다. 폭력남편, 한박을 아내 위에 올리고 승리의 표시를 한다. 이때 휘잡기를 하는 동안 마이크를

※ 4. 가슴이 펑하네요 정말로 가슴이 펑하네요 못말려 (으샤 으샤)/정력이 남아도네 못말려 (으샤 으샤)/마누라야 부엌에서 살림하고 (으샤 으샤)/난난난 좋은 것은 이것뿐 오 예!

물해서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부부싸움을 현장 중계한다)



아나운서: 네 지금부터 부부싸움의 현장, 안방 생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링위의 선수는 막강한 스타, 폭력남편과 연약한 아내 선수입니다. 자, 가정에 제신 여성동지 여러분 아내선수에게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남편선수의 강타 날아왔습니다. 아내 선수, 불을 피해 안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밖으로, 밖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지하실로 타격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설자: 네, 그래봤자 역시 별볼일 없을 겁니다.

아나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설자: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원투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는 것이.....

아나운서: 네, 말씀드리는 순간, 남편선수의 어퍼 커트, 3루타입니다. 아내 선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한 불이 튀어서 유리창을 깨고, 거울을 깨고, 장독을 깨고, 기와장에 맞았습니다. 남편선수, 땀을 쏟았습니다. 네, 이때, 홈그라운드 의 장점을 살린 아내선수 자식들의 벌떼같은 성원에 힘입어 남편선수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네, 물어 물고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손톱이 등장했습니다.

해설자: 쫓쫓, 미련합니다.

아나운서: 그러나, 역부족임이 여실하게 보입니다. 남편선수 땀. 네, 장의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 (아내선수의 쓰러지는 장면과 맞아 떨어진 순간)

해설자: 저것 보십시오. 에이! 통쾌하군요.

아나운서: 참, 비참하네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해설자: 일반적이고 당연한 승리이지요.

아나운서: 참 찜찜하네요.

아나운서 잡색: (동시에) 이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이혼시켜 주세요.

(유리거리)

(유리가 등장한다)



유리: 어험, 아니, 어디서 꼬지요—탈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감히 여자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다니. 자고로 여자란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 잘 전사하는 것이 현모양처의 도리이거늘, 다소 살기가 힘들다하여 가정을 원싹 버리듯이 하니 이는 실로 나라가 망할 정도로다. 어흠, 음, 요즘, 일부 물지각한(판격을 가리키며) 여자들이 가족법 개정 운운하면서 이혼을 조장하여 순진한 여성들마저 혼란시키고 있다 하니, 이는 사회의 안정된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현재 주장되고 있는 가족법 개정안은 남성 중심의 현 사회질서에 대한 전면 도전임이 분명한데, 호주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 박씨의 여자집에 어찌 김씨의 여자가 와서 대를 이을 수 있단 말인가! 씨는 씨로서 유지되는 것이니라. 또 가족을 금수로 아는지 동성동본 혼인을 주장한다하니 이는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 석구에서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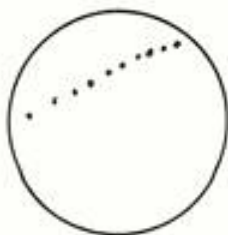
의 성을 따르는 바,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
집을 가도 자신의 성씨는 그대로 간직하니
이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다.
세상 여자들이여 /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평등에도 차별이 있다는 걸 모르는가? 어
름!

(취업여성 거리)

(유림, 거들먹거리며 뽐내고 '사랑받는 아내
교실' 동동실이 등장한다)

동동실 : 안녕하세요? 사랑받는 아내교실, 동동실
이에요. 아유, 남편하고 짝! 갈라 서시
겠더라고요? 왜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쫓쫓쫓, 그거 다 여자가 할 탓이에요. 여
자가. 아니, 그래. 여자가 오죽이나 못났
으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 아아, 그렇게
평퍼짐하게 퍼질러 앉아가지고 징징대고
있으니깐 그렇죠. 그러지 말고 분한 마음
삭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선 헬스크
럽에 가서 살 좀 빼고 사우나탕에 가서 땀
좀 빼요. 그리고 핑크빛 칼라의 잠옷을 걸
치고서 남편에게 뽐내하게 어필해 보세요.
아, 남편이 무척가 아닌 이상, 아내가 이
렇게 노력하는데 어찌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매력,
매력! 그것만이 바로 여자의 살길 아니겠
어요? 텔레비전은 뭐하러 봐요? 그런거
나 배우지.

(동동실, 대사가 끝나자마자 잡객들, 후다닥 일
어나 판을 이리저리 다니며 제 나름대로 함께 살
수 없는 이유, 이혼 해 달라는 호소 등을 외친다.
그러다가 판에서 사선이 되게 일렬로 정돈하여
서면 장구 '딱' 소리와 함께 앞사람부터 정면을
보고 있던 몸을 왼쪽으로 (열사람을 향해) 방향
바꾸며 한마디씩 한다. 열사람 어찌를 치며)



- 잡 객** 1 : 취직? 여긴 여자는 안 뽑아!
2 : 능력? 웃기시네. 여자는 그저 미모!
3 : 키의 탈 줄 알아? 그럼, 곤란해!
4 : 결혼한 여자를 누가 뽑아!
5 : 스물 다섯? 여기가 무슨 양로원인 줄 아
나?
6 : 누구 짝이야?
7 : 모집할 땐 공채, 뽑을 땐 특채!
8 : 기부금 얼마? 그걸로는 간에도 안차!
9 : 학력이 너무 높아!
10 : 학력이 너무 낮아!
11 : 지방대학? 안뽑아!
12 : 어찌에 힘 좀 써!
13 : 남자랑 똑같은 월급을 달라고? 주제를
알아야지.
14 : 생리 휴가, 산전 산후 휴가? 여기가 뭐
부녀 보호소인 줄 알아?

(마지막 잡객까지 잘 동안 모두 동작 정지상태
로 있고, 다시 끝에서부터 한사람씩, 앞사람의
어찌를 치며 180°를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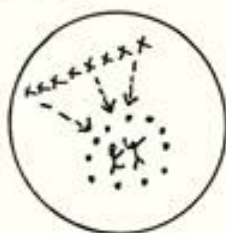
잡 객 14 : 어이, 시집이나 가지.

- 13 : 여자는 결혼이 최고야.
12 : 요리나 배우시지.
11 : 솔뚜정 운전이나 잘 하라구.
10 : 아들이나 낳지.
9 : 여자는 그저 부엌 살림이 최고란다.
8 : 꽃꽂이나 배워.
7 : 빨래나 잘하지.
6 : 애나 잘 키워.
5 : 기저귀나 빨아.
4 : 가계부 정리 다했어?
3 : 애우는 소리 안들리니?
2 :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게 복이라구.
1 : 남자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고 말겠다.

(왜곡여성상 거리)

(사선으로 정돈된 상태로 대사가 다 끝나면 잡
객 1부터 판 중심으로 나와서 포즈를 취하며 조

상을 만든다. 이때의 대사는 과장되거나 C.M Song에 맞춰서 한다)



잡 색 1 : 여자는 밤에 이루어진다. 오버나잇 섹스!

14 : 너무 너무 먹고픈거 있지? 맞아 맞아 아다라시!

2 : 남성은 청결한 여성을 좋아한다. 베타지 노던!

13 : 얼굴만이 여자의 전부인가? 바스트!

3 : 난 큰게 좋아라. 팡파테!

12 : 축축히 적셔주세요, 아무데나 스킨!

4 : 여자는 몸으로 말한다.

11 : 가지세요 입술, 시세이도!

5 : 피부를 감싸는 부드러운 유혹, 소프트 나이트 가운!

10 : 세 번은 짧고 세 번은 길게, 흔들어 주세요 뽕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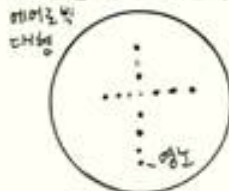
6 : 당신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만져 주세요, 바스트 크림!

9 :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있다. 무릎과 무릎사이, 팬티스타킹.

7 : 아름다운 여성의 신용장!

8 : 보이지 않지만 (저고리를 벗는다) 보이고 싶다. 손수건과 팬티의 조화 (바지를 벗는다) 조은님 팬티!

(잡색 8이 옷을 벗어서 던지고 조상이 되어 있는 잡색들 주위를 뱅뱅돌며 오방진 장단에 맞춰 요란하게 춤춘다. 춤을 멈추고 손뼉을 '탁탁' 두번 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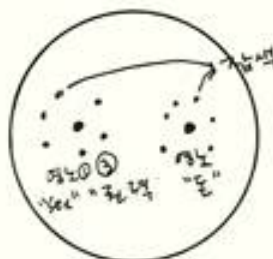
영 노 : 자 준비하세요. 원, 루, 원루 쓰리 포! (장구 장단에 맞춰 조상을 꿇고 에어로빅 대형으로 서서 영노를 따라 에어로빅을 춘다. 이때 마이크에서는 피성을 지르며 정신없이 만든다)

마이크 : 치먹어라 치먹어, 코카콜라 마셔라, 마시고 살찌라 살찌! 찢살 때라, 흔들어/흔들어! 발라라 발라 치발라라 치발라.그리세요 입술! 팩스 어필! 어필!

(계속 소리 지르고, 잡색들 춤추다가 점점 지쳐서 흐느적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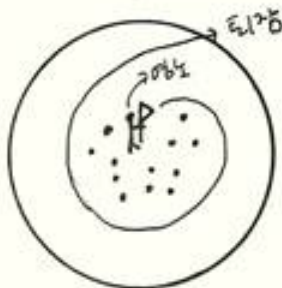
마이크 : 뛰어들라 뛰어들! 땀 때라구, 치먹고 찢고 찢살 때! (반복)

영 노 : 아이. 아줌마, 뭐하는 거야. 이때 가지고 어떻게 살을 빼. 흔들란 말예요.어찌를 찢혀요. 아줌마. 좀 신나게 흔들어 봐요.



(영노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잡색들, 완전히 기절해진 모습이다. 영노, 성을 상품화하는 잡색의 광고들을 들고와 '팩스!' 하고 판에다 휘 뿌린다. 지쳐있던 잡색들, 갑자기 영노의 주위로 물려든다. 영노를 중심으로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황홀해하기도 하고 피로워하기도 하는 등 온갖 모습을 연출한다. '가지세요, 가지세요'를 연방 외치면서 머뭇기도 한다. 영노, 내려다보며 웃다가 춤을 추며 자리를 이동하면 잡색들 몸을 가만있고 고개만 물려 영노를 본다. 영노는 다시 '돈' 하고 외치며 지폐를 휘 뿌린다. 잡색들, 아귀다툼을 하며 쫓아와 허겁지겁 돈을 잡고, 서로 싸우고, 악을 쓰고 한다. 영노는 다시 반대편에 가서 '권력' 하고 외치며 주먹을 휘어붙고서 있다. 잡색들, 동작을 느리게 하여 서서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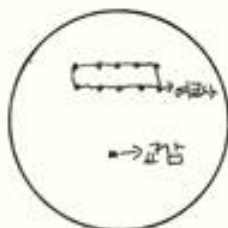
빙빙 돌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영노 주위에 모인다. 잡색들이 천천히 허물어지면 영노는 채국주의와 Sex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춤을 정신없이 춘다. 잡색들, 무릎 꿇고 앉아 허위적대는 춤을 춘다. 영노가 춤을 추다 잡색사이로 들어오면 장단, 느려지고 늘어진 깃발을 향해 모두들 멀건히 바라본다. 장구 '딱' 소리가 나면 동작을 멈춘다. 잡색들 머리 위에 깃발이 늘어져 있다. 상채 장단이 나오면 서서히 일어나 판을 돌며 퇴장한다.)



사례극 마당 1. 여교사임신퇴직 마당

(여교사 사례극)

(한복을 입은 여교사들이 합창단원이 되어 2열 횡대로 정돈하여 서면 교감선생님이 지휘봉을 들고 등장한다. 여교사들 앞에 서서)



교 감: 선진시대 여교사 참가.

(여교사들, '새나라의 어린이'에 맞춰 노래 한다)

여교사들: 새 시대의 여교사는 상사에게 복종합니다. 임신하면 퇴직하고 기부금은 X니다.

(이때 노래를 하면서 노래가사에 맞는 동작을 함께 보인다. 교감은 지휘를 한다)

교 감: 아니, 김선생, 그런식으로 상사에게 복종해 가지고 어디 접수 따졌어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기부금 운운하는 대사가 나오니까 다들 얼굴이 싫아 좋은 우거지 상물이 되는데 들어올 때 기뻐만된 기부금 내신거, 다 학교를 위하는 길이고 그 길이 곧

여러 선생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아깝다는 생각은 다 버리고 선진시대 여교사의 이념을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다시 한번!

(여교사들, 앞의 노래를 다시 한다)

교 감: 아, 좋아요, 좋아, 그만하면 됐어요. 예 또 오늘 아침 조회사는, 요즘 보니까 교감이나보다 더 늦게 출근하는 여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니, 교사면 다 같은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여자로서, 교사이기 이전에 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퇴근할 때에도 좀 빨리 와서 교무실 청소도 하고, 내 애길 해서 안됐지만 교감인 내 책상도 좀 닦아주고, 또 퇴근할 때는 어떻게 여선생이 먼저 퇴근합니까? 문단속 다 해 놓고, 교무실 집기도 제자리에 놓여 있나 보시고 뒤늦게 나가야 될 줄로 아는 바입니다. 다음! 한 칸에 들자하니 어떤 학교에서는 일부 불지각한 여교사들이 파렴치하게도 임신을 해 갖고 그 사실을 학교에 자수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씩이나 숨기고 다니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임신한 여교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시각공해

예요, 시작공해 / 우리 학교에서는 교칙상
절대로 용납안되느니 만큼여러 선생님들이
집 명심해 주기 바라겠어요. 자, 수업을 들
어가시죠.

(교감은 퇴장하고 임신한 여교사가 한발 앞으로
나와 노래 '나 어떻게'를 부른다)

임신여교사: 나 어떻게 임신한 거 보록나면
나 어떻게 학교에서 쫓겨나면
누구 위해 빛든 내어 기부금 바쳤나-
아.

합 제: 아 아-,
당당했던 내가, 땃땃했던 내가, 주눅들 줄
이야.

교사1: 선생님 주눅들지 마세요.

교사2: 네, 그래요, 주눅들지 마세요.

교사3: 아, 저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있어요.

합 제: 뭔데요?

교사3: 우리 모두가 열달동안 똑같이 한복을 입는
거예요.

합 제: 어머, 정말 갑작 같겠네요.
(여교사를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가며 'J
에게'를 부른다)

합 제: J, 결혼이 뭔가요, J, 임신이 뭔가요. 그
러면 당신이 내 대신 아이를 낳아봐요.

(교감이 등장하며 '아리송해'를 부르며 교사
들 뒤를 받는다)

교 감: 아리송해 / (아리송해 /) 아리송해 / (아
리송해 /)
어떤 선생이 임신했는지 난 모르겠네 (모
를거야)
이 선생님 배를 봐도, 난 모르겠네 / (모
를거야 /)
저 선생님 배를 봐도 난 모르겠네 / (모를
거야 -)

(교감, 한쪽으로 가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서 있
는다. 교사를 '당신은 모르실거야'를 부른다)

교사들: 당신은 모르실거야 그 누가 임신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봤자 그 때도 모르실거야.

방학때 출산을 하고 새학기 시작되면은.

내 배는 훌쩍해져서 정말로 갑작 같겠지.

(이때 노래 가사에 맞게 율동을 붙여서 하고 마
지막에는 손을 들어 '딱' 소리를 내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들고 있다. 교감 'J에게'를
부른다)

교 감: J, 난 정말 악랄해. J, 난 너무 잔인해.
누가 임신을 했는지 찾고야 말테니까. (교
사를 가리키며) 김선생, 우리학교 토요일
날 운동회 있는거 아시죠? 그때에! 내빈들
이 (편자를 가리키며) 요것보다 조금 더
오실텐데, 그날 쓰게 김치 좀 담그세요. 조
금만, 그저 한 200 포기만 담그시는데 여
선생님들 솜씨를 충분히 발휘하셔서 맛잘
스럽게 좀 담그세요.

(교감이 일을 시키면 몇명이 준비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일을 한다)

교 감: 정선생, 여기 장학사님을 오셨는데 커피
좀 깔끔하게 내 오세요.

(몇명이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일을 한다)

교 감: 조선생 / (손을 어루만지며) 소문에 들
자하니 꽃꽂이 솜씨가 빼어나다는데 교장
실에 꽃이 시들었어요. 아, 여선생님들이
그런것 좀 알아서 눈치껏 못합니까? 교감
인 내가 꼭 이래라 저래라 말해야 되겠어
요?

(몇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한다)

교 감: 송선생님, 우리 내일 오후에 이사회 있는
것 아시죠? 가정 선생님들 다 동원하시고
모자라면 다른 여선생님들 모두 동원하셔
서 방수욕 좀 꾸밈하게 만들어 내오시고
열에 오셔가지고 색빙도 좀 하세요. 자,
일들 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고 있
으면, 교감은 왔다 갔다하며 배에다 귀도 대보
고, 유심히 살피기도 하며 누가 임신했는지 찾
는다)

교 감: (노래로) 못찾겠다 퍼프리 퍼프리 퍼프

리/나는야 정말로 야마를아/못 찾겠다
피프리 피프리 피프리/나는야 정말로 야
마를아.

(이때 '피프리'가사 교사들도 함께 부른다. 교
감, 노래 끝나고 울상짓고 들어가면 교사들 '클
레멘타인' 곡에 맞춰서 노래한다)

교사들: 여보 여보 학교에서 접대부일 했더니/팔
다리가 후들후들 뒤틀려서 뻣근해/여보 여
보 미안해요. 저녁밥 좀 지어주/반찬일랑
아무거나 대충대충 차려주.

(학부모 등장하며 '밥차' 곡에 맞춰 노래한다.
교사들 장단 넣는다)

학부모: 누가 내 새끼 때려 (바밤 바밤)
그 자식이 어떤 아인데 (바밤 바밤)
갑히 여자가 때려 (바밤 바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어

교 감: (머리를 조아리며 나와서) 육성희 이사
님 나오셨습니까? (다시 조아린다)

학부모: 안녕하세요? 제가 3학년 1반의 안쪽쪽
이 어머니됩니다.

교 감: 익히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학부모: 제가 이렇게 찾아 온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안쪽쪽이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왔
어요. 아니, 여선생한테 매를 맞고 오다
니 이제 말이나 되요? 우리 안쪽쪽이는
(손가락 4개를 피며) 4 대독자예요, 4
대독자, 내가 개를 어떻게 키운지 아세요
? 개가 잠이라도 잘라치면 할머니마저도
개 다리를 타넘지 않는 데 하물며 여선생이
우리 안쪽쪽이를 마구 때려 가지고 명이이
만-름 (두팔을 크게 벌렸다가 손톱만들
가리키며) 들었어요. 제가 이걸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당장에 그 여선생을
불러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든지
모가지들 자르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
려 주세요.

교 감: 잠깐만 고정하시면 제가 담임 선생님을

불러 오겠습니다.

학부모: 당장에 불러다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 감: 김선생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임신 여교사, 앞으로 나와 학부모에게 인사를
한다)

교 감: 선생님 반의 안쪽쪽이 어머니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쪽쪽
이가 어떤 애잖 아세요? 4 대 독자예요,
4 대독자/ 그런 아이를 마구 때려가지고
명을 이만하게 (원을 크게 그렸다가 손톱
만들 가리키며) 들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
예요? 아휴, 분해!

교 감: 김선생/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으면,
아, 나가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시든지 중
후 사범으로 나서든지 하실 일이지 그렇게
물의를 빚어서야 되겠어요?

학부모: 명이요. 글세. 이만-하계 (교감과 함께)
들었던 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 감: 어떤 경우에라도 처벌은 안돼요.
(노래로) 안돼 안돼.

교사들: (손을 들어 손바닥을 피며) 돼요, 돼요.

교 감: 정말 안돼.

교사들: 돼요, 돼요.

교 감: 처벌은 정말 안돼.

교사들: 돼요!

학부모: 당장에 처벌을 해주세요. 도저히 못참겠
어요. 우리 안쪽쪽이가 어떤 아인데 그
애를 갑히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예
요?

교 감: 저, 교감인 제 체면을 봐서 한번만 눈감
아 주세요.

학부모: 아니, 아무리 교감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눈 감아 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못참아요.

교 감: (검지손가락 하나를 들고) 한번만.....
딱 한번만.....

학부모: (노래로) 참으라니 참겠어요, 시말서
쓰게 하시면, 이번만은 참겠어요, 쪽팔려

도 참겠어요. 먼훗날 당신이 또 때린다면
그때는 알뜰없이 모가지예요.

(양팔지게) 아시겠어요?

(학부모, 뛰 돌아서 나가고 그 뒤에 대고, 교감, 허리 굽혀 인사한다)

교 감: 김선생 / 내가 애를 체벌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때릴 때 때리더라도 교육적으로
기술적으로, 명안나게, 표안나게, 흠집, 안
생기게, 증거 안남게 때리라 이 말씀이예
요. 안그래도 요즘 문교부에서도 체벌
의 한계를 정하지 못해서 시비가 일고 있
는데 이렇게 학교 명예를 실추 시켜서
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 때리더라도. 끌
라가면서 때려야지, 땀 있는 애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 보세요, 시달서 쓰라고
하잖아요.

김선생: (노래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교사들: (노래로) 교권은 어디 갔어요.

교 감: (노래로) 교권이 무어냐고 물어신다면
눈물의 열매라고 말하겠어요. 옛말에 선
생님 똥은 왁왁 / 강아지도 안먹는다 잠
아요. 참고 또 참다가 그래도 못견디면
사표쓰고 나가주세요.

교사들: 싫어, 싫어, 싫어 /

(김선생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체' 하고 손

으로 입을 가린다. 교감, 나가려다 다시 되돌
아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러본다)

여교사1: 어머, 선생님 야짜 점심 드신 게 체하셨
나봐요.

여교사2: 어머, 나도 속이 불편하네요. 체 /

여교사3: 저도 그래요. 체 /

(여교사들 전부 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체' 거
리고 있을 때 김선생님 나와서 '도, 미, 술, 도' 음
에 맞춰 지휘한다. 교감, 정신없이 당황하다가)

교 감: 못찾겠다 피꼬리 피꼬리 피꼬리, 나는야
정말로 야마몰아 /

(노래 마친후, 울상이 되어 머리를 저으며 퇴
장한다)

교사들: (노래 - '사나이로 태어나서')

여교사로 태어나서 임신도 좀 했다면(허
이 / 허이)

우리가 못한 거 있다면 말해봐 말해봐 /
수업과 잡무 속에 시달리면서도 /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충수업도 /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모두 다 해냈다. 해냈다.

(모두들 오른팔을 들어 척척하게 노래를 한 뒤
서로 서로 인사를 하며 치하한다)

교사들: 선생님, 열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
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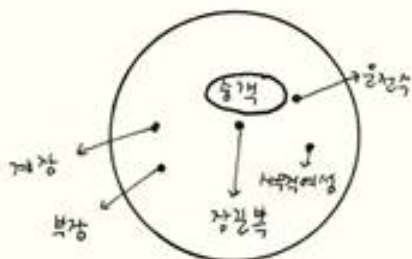
(교사들, 퇴장)



마당 2. 버스안내양 자살마당

(판의 한쪽에는 버스회사 부장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계장이 서 있다. 반대편에는 사무를 보는 아가씨가 서 있고 판 중앙에는 안내양들이 승객으로 나와 있다.)

장길복 : 승객들을 팔로 밀면 승객들·목지거리를 한다. 운전사, 한 발 떨어져서 운전하고 있다)



장길복 : 안으로 좀 들어 가주세요, 네?

(승객을 민다)

승객 1 : 야, 그만 밀어.

승객 2 : 우리가 짐작이나?

장길복 : 혈조 좀 해주세요. (승객을 민다)

(승객 사이에서 비명이 들린다. 무척 소란스럽다)

운전사 : 야, 빨랑빨랑 해!

장길복 : (짜치발로 승객을 밀며, 손바닥으로 승객들을 두번 치며) 오라잇!

(운전사,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방향 바꾸다가 장길복이 '스름' 하고 외치면 갑자기 '씩' 외치며 급정거한다)

승객 3 : 아이쿠, 이게 뭐야?

승객 4 : 이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승객들, 두덜거리면서 옷을 털고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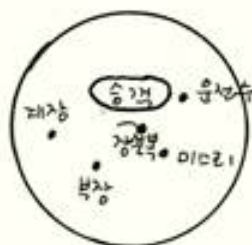
운전사 : 여기서 세우면 어떡해? 교통 오잖아.

장길복 : 손님이 세우라는데 어떡해요? (아저씨, 차비 주세요.)

(승객들 차례로 '뒤에' 하며 손가락으로 뒷사람을 가리킨다. 장길복 뒤편에 있는 손님에게 가서 차비달라고 손내민다)

승객 : 야, 누가 차비메어 먹을까봐 그래? 쌍관 매기 하고는..... 그따위로 생겨먹었으니 까 차장질이나 해먹지.

(모두 제자리에 서 있고 장길복이 고개 떨군채 서 있다. 사무직 여성이 앞으로 나와 장길복 앞에 서며 관객을 향해)



미스리 : 자! 여러분, 서비스직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쟁그런 얼굴로 (장길복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어떻게 승객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주겠어요 우리회사 사시가 뭐죠? 정직과 친절! 네, 오늘도 웃는 얼굴로 승객 여러분께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장쪽을 보며) 어머, 부장님 나오셨어요? (인사한다)

부 장 : (앞으내) 아, 오늘도 비번은 없어요. (승객들, 모두 안내양이 되어 불평한다)

(역할바꾸기)

안내양 1 : 그건 너무해요.

안내양 2 : 정말 너무해요. 한달에 25일이나..... (부장·인상을 쓰며 불평소리를 끊고서)

부 장 : 왜들 이래! 회사 사정 다들 알잖아?

미스리 : 누구는 뭐 한달에 25일 근무 안해요? 직업의식의 문제예요.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평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때 운전사가 점선원이 되어 호루라기를 '휘'

분다. 안내양 주위를 왔다갔다하며)



점심원 : 모두 소지품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와,
뭘 꾸물거리고 있어? 늦게 나오는 사람
은 수상한거야.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취' 불면 안내양들 일
렬로 정돈하여 선다. 점심원, 앞에서부터 한 명
씩 물수색을 하다가 중간에 한 명을 잡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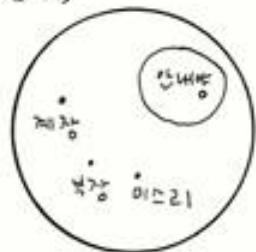
점심원 : 야, 너 이리 나와봐.

안내양 : 왜 그러세요?

(점심원, 안내양의 몸을 마구 더듬는다. 안내양,
어쩔줄 몰라 하다가 마침내 주저 앉아서 운다)

점심원 : 이거 왜 이래?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하
겠다는거야 뭐야? 너같은 건 뭐도 안먹
어. 내참, 차장이나 상대하고 있으려니까
별 것같은 것이 다 지랄이네. 야! 니네
들 말이지, 식당 여편네하고 짜고서 토른
병따치는 년들 걸리면 룬밥 먹을줄 알아.
내가 다 안다구, 알았어? 교대!

(안내양들, 한쪽으로 물러가고 사무직 여성, 부
장에게 아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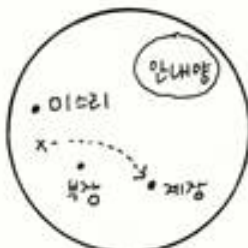
미스리 : 어머, 부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부 장 : (배를 쓸며) 아, 어제 너무 많이 마셨
나분데, 미스리, 약 좀 사오지. 아, 아니,
우선 커피 한 잔 타줘.

미스리 : 네, 부장님.

(미스리, 나가서 커피 타고오고 이때 계장 앞으로

나가서 전화오는 소리내며 전화를 받는다)



계 장 : '따르릉' (수화기를 들며) 아 여보
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라구요? 아
이구 이거 죄송하게 됐읍니다. 네, 저희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다 그런
년들이 휴간 있지만..... 아이구 죄송합
니다.(이쪽 저쪽으로 굶신대며) 고발만
은..... 아이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수
화기를 내려놓고) 이것봐, 미스리, 가서
장길복이 좀 데려와.

부 장 : 여봐, 배제장 무슨 일이야?

계 장 : 아니 이것들이 또 사고를 냈지 뭐니까?

부 장 : 뭐야?

계 장 :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대가 구청 민원실
직원이지 뭐니까, 고발하겠다고 방방 드
는데요.

(이때, 사무직 여성 뒤를 따라 장길복이 들어와
선다)



계 장 : 야, 장길복이, 너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버스 좀 타더니 눈에 피는게
없어?

장길복 : 왜 그러세요? 저는 잘못된거 없는데요.

계 장 : 야, 내가 승객이라도 너같이 오리발 썩
내미는 애는 알미워서라도 고발해 버리겠

다. 야, 장길복이 좀 와서 (앞으로 한 발 나와 고개 숙이며) 죄송하십시오, (돌아서 보며) 이렇게 좀 못하나? 넌 왜 그 모양이나? 사사건건.

부 장: 여러말 할 것 없이 버스 타기 싫으면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해.

장길복: 제가 잘못했다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사표 쓰라는 말씀은 하지마세요.

미스리: 도대체 넌 근무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전화가 오게 만드니?

장길복: 동태문에서요.

(계장, 술취한 승객이 되어 뛰어나가며 버스 안에서 흔들거린다. 장길복이 잡는다)

(역할 바꾸기)



승 객: 야, 여기 내려.

장길복: 아저씨, 여기는 안서요.

승 객: 야, 너 아까 동태문 가냐고 할 때 잔다고 했잖아.

장길복: 여기는 빨간 딱지만 서는 데예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 가세요.

승 객: 뭐? 야, 걸고 싶으면 너나 걸어. 난 못 걸어. 빨리 세워!

장길복: 아휴, 세울 수가 없는 데라니깐요. 아저씨 취하셨으니깐 여기 좀 앉아 주세요.

(장길복이 승객을 앉히려하다 차가 흔들려서 밀리게 된다)

승 객: 어쭙, 이게 막 밀어? 너는 애비 예미도 없냐? 야! 이 차 어느회사 소속이야. 몇번이야?

장길복: 술 취하셨으면 가만히 있다 내리세요.

승 객: 이년이! (따귀를 때린다)

장길복: 왜 때려요. (울먹인다) 다음이 파출소

니까 거기 가서 따져 봐요.

(승객, 술술 눈치보며 뒷걸음치다가 다시 계장의 위치로 와서)

계 장: 니가 그때위로 하나까 그런 거 아냐.

(역할 바꾸기)

장길복: 그럼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예요?

부 장: 야, 장길복이 말 잘하네.

장길복: 너무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승객한테 전화 한 번 왔다고 앞뒤 따져 보지도 않고 사표 쓰라는 법이 어딴거요?

부 장: 지금 니가 나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냐? 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똑똑한 년이 왜 밤낮 차장질이나? 나가라. 나가. 응!

계 장: 나가라, 장길복이. 너 너무 똑똑해서 우리 회사에서 못쓰겠다.

장길복: 저 못나가요, 제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나가요? 그리고 저 버스 타면서 생긴 관절염 치료비 보상해 주세요. (한쪽 무릎을 땅바닥에 댄다)

부 장: (일어서서) 야, 이게 어디 와서 텅텅 핑기고 있어? 나가. 나가!

계 장: 나가. (발로 밀친다)

장길복: 집에다 돈 부칠 것도 있고요, 지금 저를 어디서 받아 주겠어요? (울먹인다)

부 장: 시끄러워! 기집년이 아침부터 짹짹 짜는 게 운수회사에서 제일 재수없다는 거 몰라?

계 장: 나가. 나가. 나가! (미친다)

장길복: (밀려 나가면서) 어휴, 더러워서 정말!

부 장: 어디서 굴러먹던 저만چه 들어와서... 아 이구 붙쳐야. 이봐 미스리! 야 좀 사와.

(미스리, 약 사러 나간다)

부 장: 이번 사건은 그냥 허술히 넘겨선 안된다구, 회사 기강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대드는 기집애들은 잘라야 돼.

계 장: 부장님, 이번 기회에 아주 대청소를 하시지요, 저 미스리도 한 7년 굴러먹더니

알거 모를거 다 알고 마음에 안드는데,
이번에 참신한 애로 바꿔 보지요.

부 장 : 좋지,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자리 하나 만
들어 놓으라는 말씀도 제쳤고,

미스리 : (들어오며) 부장님, 약 사왔어요.

부 장 : 응? 응 / 미스 리, 고마워.

미스리 : 아이 부장님도 별말씀을 ……

계 장 : 미스 리, 나 좀 볼까?
(한쪽으로 데려간다)

미스리 : 왜요, 계장님.

계 장 : 요즘 미스타 김은 잘 있나?

미스리 : 네.

계 장 : 결혼 한대더니 어떻게 된거야? 국수는
언제 먹여 줄 거야?

미스리 : 내년 봄쯤예요.

계 장 : 그래서 말인데 말이지, 아, 처녀가 시집
갈 때가 되면 좀 바쁜가? (미스리 주위
를 돌며) 그래서 말인데 말이지, 사장
님 지시도 있고 하나까 집에서 슬슬 쉬
면서 시집갈 준비나 하는게 어때? 아,
그 미스타 김도 결혼해서까지 미스리를
고생시키게 생기지는 않았던 데 말야.

미스리 :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결혼해서도 다닐
건데요.

부 장 : 허, 미스 리, 우리 회사에서 결혼한 여자
쓰는거 봤나?

미스리 : 말씀이 틀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장님께서 제가 능력 있는 한 언
제까지 일해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부 장 : 아, 그거야 사장님 말씀이지. 그 당시 애
기이고, 미스 리도 사회생활 7년씩이나
했으면 이것저것 생각해 볼 텐데 아직도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
나.

미스리 : 아니 그럼, 저더러 지금 노골적으로 그만
두라는 말씀 아니예요?

부 장 : 어허, 그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
나, 누가 당장에 그만 두라고 했나. 시간
을 두고 차차 생각을 해 보자 이거야.

아, 그리고 이번 문제는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행여 불만이 있으면 사
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따져 보라구.

(미스리, 어이 없다는 듯, 장길복이 쫓겨 난 자
리로 와서 서 있다. 이때 안내양들 제자리에서
한명씩 일어나며)



안내양 1 : 길복이가 호락호락 사표 쓸 거 같으니!

2 : 말도 안돼, 전화 한 통 왔다고 사표 쓰
라는 게 어딴어?

3 : 야, 차장이 아무리 호구라지만 개네들
진짜 너무한다.

4 : 야, 그 부장새끼, 평소 길복이한테 무
슨 감정 있었던 거 아니니?

5 : 아뵤든 남자들은 저 밑에 있는 여자들
은 다 지전줄 안다니까.

6 : 한 식구처럼 고생하잖 때는 언제고.

7 : 퇴직금 안줄려고 그러는 거 아냐?

8 : 아니야. 근속 수당 때문에 그럴거야.

9 : 그러면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
잖아?

10 : 맞아, 우리 일이야.

11 : 만약에 길복이가 사표를 쓰면 우리도
모두 같이 사표를 쓰는거야.

(안내양들, 모두 그렇게 하자며 박을 향해 원을
만들고 서서 함께 팔장을 끼고서 천천히 돈다.
미스리, 발맞춰 도는 안내양들 앞에서 전화를
한다)

미스리 : 애, 영숙아. 너무너무 속상해 미치겠는거
있지. 아 글썽 나보고 그만두래. 사장 조
카인지 뭔지가 들어 온다는 소문이 있었
는데 그게 바로 내 자리인가 봐. 500 만
원짜리 게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떡하니?
애애. 내가 7년 동안 이증장부 쓰면서 얼

마나 듣고 베틀이 빠졌니. 근데 이제 와서 그만 두라니 정말 말도 안돼. 날 살 살 달래가지고 단들 다 빼먹고 이제 와서 그만 두라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이놈의 회사 그만 두면 가만히 안있을거야. 세금 포탈한 걸 다 붙어 버리든지 해야지. 나는 결혼해서도 직장생활 하고 싶단 말야. 뭐라구? 어머, 그런 데가 있어? 정말 도와주니? 그대 고마워. 내가 찾아가 붙께. 근데 내가 안내양 애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니? 근데 개네들 의리 하나로 뽄뽄 뽄치는데 너무 부러워. 난 정말 외로와.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 같애.

계 장 : (뛰어들어오며) 크, 크, 큰일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부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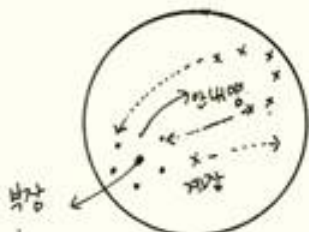
부 장 : 왜 그렇게 호들갑인가? 그대 또 무슨 일이야?

계 장 : 아, 그 장길복이란 년이 암심을 품었는지 물탱크에 코를 꽂 박고, 눈을 허열게 뜨고 주, 죽었습니다요!

부 장 : 확인해 본거야?

계 장 :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요.

(계장, 뒷걸음 치다가 도망가 버리고 안내양들 차례로 한명씩 뛰어 나와서 부장을 에워싸고 소리치른다. 부장, 겁먹은 듯 조금씩 고개를 떨군다)



안내양 1 : 뭐? 길복이가 죽다니!

2 : 무슨 소리야, 길복이가 죽다니!

3 : 그거 정말 확인해 본 거니!

4 : 아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5 :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구!

6 : 길복이는 자살할 애가 아니야!

7 : 길복아!

(부장을 에워싼 채 등짝 정지 상태로 있다. 이 용기자, 사진을 찍으며 들어온다)

기 자 : (안내양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누가 죽었어요? (옆사람에게) 그 아가씨 몇 살이에요? 혹시 남자관계, 복잡하지 않았어요? 임신하고 있었던 거 아냐? 참 내, 말들도 안하네. (퇴장하며) 특종 잡으러 왔다가 날썰군. 괜히 데스크 혼자 방방 댕잡아.

(부장, 공포에 질려서 소리치른다)

부 장 : 이, 이것들이. 나, 나가, 나가!

(부장,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쳐 나가고 안내양들, 부장이 앉아 있던 빈 의자 주위에 푹 고꾸라진다. 이때 한명이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장길복의 유서를 읽는다. 안내양들, 처음엔 호느껴 울다가 점점 오열을 터뜨리며 길복이를 부르며 절한다. 유서를 읽는 동안 반대편에서 장길복이 나와 절망과 고통의 몸짓으로 바닥에서 뒹군다. 한편, 배경 음악으로 상여소리나, 슬픈 민요가 흐른다. 장길복 허공을 응시하다가 쓰러지며 절규한다)



유 서 : 정순아, 상실아, 순이야, 미안해.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어. 아픈 엄마생각, 동생 학비 생각하며 서울로 올 때도, 라면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워가며 철야 작업을 할 때도 난 울지 않았어. 난 살고 싶

있어. 점심원 아저씨가 물수색을 하며 갖은 모욕을 다 해도 난 참았어. 이를 악물고 돈 모아서 이 지경을 벗어나보자는 희망으로 참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없어. 아무리 때까지 일해도 그런 날이 나한테 올 희망은 안보여.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어. 이렇게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못살아야 하니? 우리 엄마랑 동생들은 어떻게 하니?

엄마, 미안해요. 길순아,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하러 올라오겠다는 편지 받았어. 너만은 어떻하든 나같이 안만들려고 애썼는데…… (울먹인다)

애들아, 날 바보같은 애라고 욕해줘. 난 진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바보가 되면 안돼.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혀 살 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떠나지만 제발, 제발 너희들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줘. 내 몫까지 살아줘 안녕.

장길복 : (쓰러져 있다가 손을 들어 일어서려고 하며) 엄마! 난 억울해요. 엄마, 엄마 나 살고 싶어요. (다시 고꾸라진다)

(안내양들, 서서히 꿈틀거리며 '전진가'를 부르다가 일어서서 장길복과 함께 한 명이 무릎 꿇고 판을 돈다. [이때, 사무직 여성과 기자, 무리에 합세한다] 노래는 계속 이어지고 장길복, 안내양의 무리 앞에서 구호를 외친다. 안내양들, 따라서 외친다)

장길복 : 안내양의 생계를 보장하라!



점심행위 철폐하라!

지정된 근무일을 지켜달라!

운전기사와 안내양의 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

안내양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해달라.

(이때 마이크를 통해 안내양 뿐 아니라 근로 여성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한다.

안내양들, 노래 부르며 퇴장한다)

성명서 : 우리는 오늘날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저야할 보다 큰 책임을 오히려 연약한 근로자들에게 귀결지워 버리는 오늘의 사태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근로자의 인권침해나 비인도적인 처우, 열악한 근로조건,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 등의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합치된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라.

둘째, 모든 기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근대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불식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관행과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이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생활권을 확고히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노사관계 정책,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라.

여성평우회(The Women for Equality and Peace)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새문화창조와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83년 6월 18일 창립된 여성단체이다. 본회는 회원의 창조비와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로서 조직부, 교육부, 조사연구부, 홍보부, 사회부, 문화부등 6개 부서가 있다.

제 2 기 여성학교실 실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 2 기 여성학교실이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매주 토요일 3:30-7:00) 교육부 주최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제 1 기 여성학교실 수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접근과 후속작업을 돕기 위한 방법론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변동에 따른 직장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강 후 직장여성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 여성운동의 주체자로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방법도 수강자들이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와 발표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 2 기 여성학교실 강의안은 아래와 같다.

3월 23일 참석자 소개 / 강의 I : 여성문제의 이해(조형) / 친교의 시간

3월 30일 강의 I : 여성심리(정진경) / 강의 II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김경애) / 토론회

4월 6일 강의 I : 주체적 직장여성과 "여성다움의 신화" 극복(한정라) / 강의 II : 여성해방사상의 흐름(이미경) / 토론회

4월 13일-14일(숙박교육) / 강의 I : 한국여성운동사(이경숙) / 강의 II : 직장여성의 문제와 방향(지은희) / 토론회 / 발표회

부산에서 '여성문화 큰잔치' 개최

여성평우회 문화부는 '84년 1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여성문화큰잔치'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에 홍사단에서 열렸던 '여성문화큰잔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12월 22일 오후 2시, 23일 오후 2시와 6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000여명 이상의 행사참여자로부터 일련 호응을 받았다.

「제 3 세계와 여성노동」 발간

3월 말에 발간되는 「제 3 세계와 여성노동」은 번역물로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불명등 구조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제 3 세계 여성들이 당면한 노동현실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찰할 수 있는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전체 구조는 제 1부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제 2부 제 3 세계의 여성노동론, 제 3부는 제 3 세계의 '여성노동현실(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되고, M. 벡킨토시의 [성과 경제], H. 하트만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비치의 [여성과 생산], 카멘더의 [주변부 농촌여성의 생계유지적 생산], 베시의 [여성과 발전], 그리고 H. 사과의 [도주기업과 여성노동] 등의 논문이 실린다.

◎ 자료집 발간 : "빈민지역의 여성과 아동"

빈민여성과 아동을 보는 시각, 지역적 특성, 사례 및 해설등을 내용으로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

●●공부방사업 후원회 모집●●

공부방사업을 위한 후원회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본회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8679). 후원회 회비는 한일은행 021-01-142786 (특히 이 구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095-02-417751, 주택은행 412701-84-003058, 홍미영 앞으로 송금하시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운동 소식

78개 여성단체 「여성유권자 선언」 발표

대한 YWCA연합회, 여성평우회, 가정법률상담소 등 78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1월 15일 YWCA 대강당에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한 여성유권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여성단체대표들은 현행 선거법과 실천되지 않았던 선거공약, 열악한 여성지위 등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대한 결의, 여성차별거부와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공명선거보장, 선거법 개정, 여성단체의 자율성 보장, 근로여성의 권익보장과 노동법 개정, 농업정책 시정, 여성차별법 개정, 여성에 대한 공권력의 성적 폭행금지 등의 대정부요구사항을 채택했다. |

가족법개정 촉진대회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작년 11월 29일 서울 YWCA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족법개정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70개 여성단체회원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12대 총선에서 가족법개정의사를 지닌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가족법개정운동의 지속적 추진 등을 재천명하였으며, 유보없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회비준, 가족법개정을 연내에 실천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또한 과 동원씨의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나」, 한 명희씨의 「여성유권자와 투표권」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결성과 활동

교회여성단체, 청년 및 여성운동단체 등 10여개 단체는 경찰에 의한 잇따른 여대생 추행 및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84년 11월 21일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행태의 인권탄압이며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행사건임을 밝히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근임을 확인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 대통령 앞으로 항의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각 계의 항의문 및 성명서, 여학생 추행사례와 여성노동자 추행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소식지 1·2집을 발간하였다.

「또하나의 문화」발족

1984년 12월 9일 서울 민예소극장에서 「또하나의 문화」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각 분야의 교수와 대학생, 대학원생 및 작가, 기자, 주부, 출판인 등의 여성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동질성과 획일성을 거부하고 제3의 방식을 만들어보일 것이며,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전체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결성되었다. 이들은 여성해방론연구회, 직장생활연구회 등 7개의 동인 소집단 활동과 무크지를 비롯한 출판문화활동을 주로 해 나갈 예정이며, 발기동원은 조 형, 조 혜정, 조 옥라, 조 은, 김 애실 씨 등이다.

그리고 3월 1일 첫번째 무크지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를 출간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성명서 발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는 지난 1월 21일 「현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 민주여성의 이름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어린이집, 보람의 집 탁아소 개원

2월 26일 도봉구 창동에서 개원한 평화어린이집(993-4505)은 일일제 탁아소를 운영하며 원장은 전순옥. 또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가 3월 2일 구로구 천왕동에서 주일제 탁아소인 보람의 집(684-5216)을 개원하였다.

◆◆◆ 원고모집 ◆◆◆

「여성평우」는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관한 논의를 수렴시키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이 겪는 생활 현장의 목소리와 움직임 모두를 폭넓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바랍니다.

◆◆◆ 투고 환영 ◆◆◆

내용 :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분량 :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는 곳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22. 어린이문화관내

「여성평우」담당자



빼앗긴 일터

장남수 지음

이 수기는 50년대말에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70년대에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원종모방에서 일하다가 저 읍신말기에는 <진과자> 그리고 이른바 색시대에는 <배고자>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얻기까지 그 누구보다 더 참되게 살고자 노력했고 진실한 삶을 꿈꾸었던 한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생활을 그린 기록이다. 이 답답하면 서도 치열한 목소리아말로 바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뜨거운 욕설로 살아날 것이다. (2,800원)

창작과비평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21 TEL. 362-7577-9897

빈민여성과 아동에 관한 자료집

1. 도시빈민여성문제를 보는 시각
2. 도시빈민여성의 사례
3. 도시빈민아동을 보는 시각
- 부록 1. 만석동 큰 물 공부방 경과, 프로그램, 사진
2. 도시빈곤문제 참고문헌

제 3 세계의 여성노동 여성평우회편

제 1 부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1. 성별분업과 여성의 예측...머린 맥킨토시
2. 여성노동에 관한 사회학 이론들의 비판적 분석.....베로니카 비치
3.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하디 하트만
4. 주변부 농촌여성의 생계유지적 생산.....카멘 더어

제 2 부 제 3 세계 여성노동에 관한 이론적 시각

1. 여성과 발전, 의존성과 착취.....준 내쉬
2. 여성, 생산양식, 사회구성체 헬레이드 사피오티
3. 여성노동과 도주기업 헬렌 색과

제 3 부 제 3 세계 여성노동의 현실

1. 과테말라에서의 산업화, 독점자본주의, 여성노동.....노마 친칠라
2. 브라질 여성의 노동참여 그라우라 미란다
3. 에쿠아도르 도시빈민여성에 관한 연구...캐롤라인
4. 베네주엘라의 종속적 발전과 성별분업...마리안 슈민크
5. 싱가포르의 계획적 경제개발, 사회계층 형성 및 성별분업.....앨런 왕
6. 자바의 계급구조와 여성의 자율성.....앤 스톨러
7. 전자산업과 여성노동.....라셀 그로스만
8. 여성과 비공식부문의 분석 노엘린 헤이저

창작과비평사